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장 민 정 교수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조선시대 남자 포에 나타난
무의 형태변화에 관한 연구

2014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의류학과

김 신 애

조선시대 남자 포에 나타난
무의 형태변화에 관한 연구

장 민 정 교수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3 11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의류학과


김 신 애

인 준 서

김신애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심사위원 김 경 희 

심사위원 문 윤 경 

심사위원 장 민 정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논문개요

조선은 송유억불(崇儒抑佛)을 기반으로 하여 건립된 국가이며 신분 사회였다. 조선시대 중기의 임진왜란(壬辰倭亂)으로 인하여 정치·경제·사회적으로 큰 변화가 생겼으며, 이는 복식문화에도 영향을 미쳐 남자 포(袍)가 여러 가지 종류로 분화되었다. 포는 상고시대부터 방한의 목적으로 착용되었는데, 조선시대 남자들은 예(禮)를 지키기 위해 실내외에서 의관(衣冠)을 갖추기 위해 포를 착용하였고, 신분계급이나 용도에 따라 다른 포를 입었다. 이러한 남자 포는 시대에 따라 깃, 소매, 무 등 구성요소의 형태가 변화하였으며, 이로 인해 당시 사람들의 의복의 조형적 선호도를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조선시대 남자 포 중에서 단령(團領), 직령(直領), 창의(擎衣), 도포(道袍), 답호(襜褕), 주의(周衣) 등 사대부들의 편복포(便服袍)로 사용된 의복을 선정하여 조선시대 남자 포의 구성 요소 중 무의 구조와 형태 변화에 중점을 두어 시대별로 나타나는 조형적 특성과 유형 분석을 통해 조선시대 남자 포의 변천 형태를 알아보는 것에 목적이 있으며, 이를 통해 출토복식과 유물에 나타나는 조선시대 남자 포의 특징과 형태를 보다 정확히 이해하고 파악할 수 있다는 것에 의의를 갖는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조선시대 남자 포에 나타난 무의 유형은 겨드랑이점 아래에서 여러 개의 주름이 접혀 옆선 안으로 들어간 안주름형, 무의 옆선쪽과 바깥쪽이 접혀 있는 형태에서 무의 윗부분에 사선으로 접힌 안팎사선주름형, 무가 연결된 옆선과 무의 바깥쪽에 주름이 있는 안팎주름형, 무의 바깥쪽에만 주름이 있는 밖주름형, 앞무와 뒷무의 윗부분이 뒤로 젖혀진 뒤젖힘주름형, 뒤로 젖혀진 무의 윗부분이 매듭단추나 상침으로 뒷길에 고정된 뒷길고정형, 주

름이 없는 두루마기형의 총 7가지로 분류된다. 조형적 형태는 삼각형, 사다리꼴형, 직사각형으로 나누었다. 무의 형태 중 윗변이 뾰족한 변형사다리꼴형은 마름모형과 유사하나 윗변이 뾰족한 것만 제외하면 사다리꼴형과 거의 동일한 형태로 본 연구에서는 사다리꼴형으로 분류하였다.

둘째, 무의 유형 및 형태는 초기에 안주름형, 안팎사선주름형, 안팎주름형의 직사각형 무가 주를 이루었다. 단령과 직령에서는 안주름형, 안팎사선주름형, 안팎주름형의 직사각형 무가 많이 보이며 밖주름형이 직사각형으로 새로이 나타났다. 창 의는 두루마기형의 삼각형 무가 보이며 도포는 초기의 유물이 없어 형태를 알기 어려우나 고려시대 불복장유물 중 해인사 소장 도포형 직령포의 존재로 초기에도 도포를 착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답호는 안팎사선주름형, 안팎주름형의 직사각형 무가 주로 나타나며 안주름형의 무는 없으나 고려시대의 답호에서 나타나 초기에도 안주름형이 존재하였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주의의 무는 삼각형의 두루마기형이다.

중기에는 밖주름형무, 뒤젓힘주름형의 직사각형과 윗변이 뾰족한 사다리꼴 형태의 무가 많이 나타난다. 이러한 무 형태는 단령과 직령에서 보여지며 단령에서는 뒷길고정형이 사다리꼴형으로 새로이 나타났다. 도포와 창 의는 두루마기형의 삼각형 무와 사다리꼴형 무가 주를 이루고, 답호는 밖주름형 무인 직사각형과 두루마기형인 사다리꼴형으로 보여 진다. 도포, 창 의, 답호에 나타나는 사다리꼴형 무는 단령과 직령의 사다리꼴형과 다르며 윗변이 짧은 이등변 사다리꼴형이고, 주의는 삼각형무에 두루마기형이 나타난다.

후기에는 뒤젓힘주름형, 뒷길고정형의 사다리꼴형과 두루마기형의 삼각형 무가 주로 나타난다. 단령은 뒤젓힘주름형과 뒷길고정형의 윗무가 뾰족한 변형사다리꼴형 무이며 직령의 무는 두루마기형의 삼각형으로 보아 중기까지 무의 양상이 같았으나 후기에는 달라졌음을 알 수 있다. 창 의, 도포, 답호, 주의는 두루마기형의 삼각형 무이다.

말기에는 뒷길고정형의 사다리꼴형과 두루마기형의 삼각형무가 주류를 이

룬다. 단령은 매듭단추나 상침으로 무의 윗부분을 뒷길에 고정하였고, 의복의 간소화 경향으로 인하여 삼각형의 두루마기형 무가 나타났다. 직령은 단령의 안감으로 사용되다가 말기에는 단령의 안킷에 직령의 깃이 부착되면서 착용사례가 줄어들어 유물을 찾아보기 어렵다. 창의, 도포, 답호는 말기에도 삼각형의 두루마기형 무가 나타나며 답호는 말기에 사라지는 포제로 그 유물은 있으나 전복(戰服)과 유사한 형태로 바뀌었다. 주의는 삼각형의 두루마기형 무가 나타난다.

이상에서 조선시대 남자 포에 나타난 무의 형태 변화를 살펴본 결과, 무는 활동성의 편의를 위해서 사용되기 시작하였으며, 시대별로 다양한 무의 형태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당시 사람들의 미적 취향이 반영된 장식성의 기능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조선시대 말 의복의 간소화 경향으로 주름이 있는 무 보다 주름이 없는 단순한 형태인 두루마기형의 삼각형 무가 많이 사용되었다. 이러한 무는 조선시대 사회적 변화에 영향을 받아 형태가 변화하였음을 알 수 있다.

목 차

논문개요

I. 서론	1
II. 이론적 배경	4
1. 조선시대 남자 포의 종류 및 특징	4
2. 무의 형태 및 구조적 특징	32
III. 조선시대 남자 포에 나타난 무의 형태 변화	37
1. 무의 유형	37
2. 포에 따른 무의 형태 변화	44
IV. 결론	89

참고문헌

ABSTRACT

표 목 차

<표 1> 시대에 따른 단령의 변화	10
<표 2> 시대에 따른 직령의 변화	13
<표 3> 시대에 따른 창의의 변화	20
<표 4> 시대에 따른 도포의 변화	25
<표 5> 시대에 따른 답호의 변화	28
<표 6> 시대에 따른 주의의 변화	31
<표 7> 무의 유형 및 조형적 형태	43
<표 8> 시대별 단령 무의 형태 변화	54
<표 9> 시대별 직령 무의 형태 변화	63
<표 10> 시대별 창의 무의 형태 변화	69
<표 11> 시대별 도포 무의 형태 변화	75
<표 12> 시대별 답호 무의 형태 변화	83
<표 13> 시대별 주의 무의 형태 변화	86

그림 목 차

<그림 1> 덕흥리 벽화무덤	5
<그림 2> 감신무덤 앞방동벽감실 벽화	5
<그림 3> 백제금동대향로의 곡령착용모습	5
<그림 4> 용강동 토용	5
<그림 5> 16C초 김흠조 단령	8
<그림 6> 17C초 박장군 단령	8
<그림 7> 18C중 이직 단령	8
<그림 8> 의원군 이혁 단령	9
<그림 9> 19C 윤용구 단령	9
<그림 10> 19C 김병기 단령	9
<그림 11> 16C초 김흠조 직령	12
<그림 12> 17C초 김확 직령	12
<그림 13> 19C중 홍희준 직령	12
<그림 14> 17C후 최원립 대창의	15
<그림 15> 18C중 이직 창의	15
<그림 16> 19C 이연웅 대창의	16
<그림 17> 16C 최진 부인 중치막	17
<그림 18> 17C초 김확 중치막	17
<그림 19> 17C후 정재후 중치막	17
<그림 20> 18C초 홍진중 중치막	17
<그림 21> 17C후 정재후 소창의	18
<그림 22> 18C초 홍진중 소창의	18
<그림 23> 19C 학창의	19
<그림 24> 19C후 고종 청초중단	19

<그림 25> 17C초 신경유 도포	23
<그림 26> 18C초 의원군 이혁 도포	24
<그림 27> 19C 도포	24
<그림 28> 20C 도포	24
<그림 29> 16C초 김흠조 답호	27
<그림 30> 17C초 윤선언 답호	27
<그림 31> 18C초 이변 답호	27
<그림 32> 19C 정원용 답호	27
<그림 33> 16C 심수륜 주의	30
<그림 34> 18C초 의원군 이혁 주의	30
<그림 35> 19C 이연웅 주의	30
<그림 36> 20C초 유용준 주의	30
<그림 37> 17C초 이용해 중치막	33
<그림 38> 19C 홍완군 곽단령	33
<그림 39> 17C초 한준민 단령	34
<그림 40> 17C초 김위 단령	34
<그림 41> 의원군 이혁 단령	34
<그림 42> 14C 해인사 답호	35
<그림 43> 17C 윤선언 답호	35
<그림 44> 16C 이연충 직령	35
<그림 45> 16C 정응두 단령	35
<그림 46> 14C 해인사 답호	37
<그림 47> 안주름형 도식화	37
<그림 48> 16C 변수 답호	38
<그림 49> 안팎주름사선무 도식화	38
<그림 50> 16C후 심수륜 직령	39
<그림 51> 안팎주름형 도식화	39
<그림 52> 17C초 윤선언 답호	40

<그림 53> 박주름형 도식화	40
<그림 54> 17C초 신경유 단령	41
<그림 55> 뒤젓힘주름무 도식화	41
<그림 56> 20C초 윤용구 단령 뒤	41
<그림 57> 뒷길고정형 도식화	41
<그림 58> 20C 주의	42
<그림 59> 두루마기형 도식화	42
<그림 60> 16C후 신언식 단령	44
<그림 61> 16C초 정은 단령	45
<그림 62> 16C후 심수륜 단령	45
<그림 63> 16C후 송희중 단령	46
<그림 64> 17C초 윤선언 단령	47
<그림 65> 17C초 조경 단령	48
<그림 66> 17C초 신경유 단령	48
<그림 67> 18C후 이익정 단령	49
<그림 68> 18C초 의원군 단령	50
<그림 69> 19C중 홍희준 단령	50
<그림 70> 19C후 홍선대원군 자적단령	51
<그림 71> 19C후 김병기 단령	52
<그림 72> 17C초 조경 직령	55
<그림 73> 16C후 심수륜 직령	56
<그림 74> 16C초 정은 직령	57
<그림 75> 16C후 송희중 직령	57
<그림 76> 17C중 제주고씨 직령	58
<그림 77> 17C초 신경유 직령	59
<그림 78> 17C초 김위 직령	59
<그림 79> 17C초 이용해 직령	60
<그림 80> 17C중 동래정씨 직령	61

<그림 81> 19C중 홍희준 직령	61
<그림 82> 17C초 조경 창의	64
<그림 83> 17C초 신경유 창의	65
<그림 84> 17C후 최원립 창의	66
<그림 85> 17C초 김확 창의	66
<그림 86> 18C초 이변 창의	67
<그림 87> 18C초 이연응 창의	68
<그림 88> 17C초 김확 도포	70
<그림 89> 17C후 홍극가 삼베홀도포	71
<그림 90> 17C후 정광경 도포	71
<그림 91> 17C초 김확 도포	72
<그림 92> 18C중 착용 영조 도포	73
<그림 93> 18C초 이연응 도포	73
<그림 94> 20C 도포	74
<그림 95> 16C초 고운 답호	76
<그림 96> 16C후 정응두 답호	77
<그림 97> 16C후 심수륜 답호	77
<그림 98> 17C초 조경 답호	78
<그림 99> 17C초 윤선언 답호	79
<그림 100> 17C초 남이홍 답호	79
<그림 101> 18C초 이변 답호	80
<그림 102> 18C초 이변 답호	81
<그림 103> 19C 정원용 답호	81
<그림 104> 16C후 심수륜 주의	84
<그림 105> 18C초 이연응 주의	85
<그림 106> 20C초 유용준 주의	85

I. 서론

조선은 유교(儒敎)를 바탕으로 건립된 국가이며 철저한 신분 사회였다. 중기에 임진왜란(壬辰倭亂, 1592~1598)과 병자호란(丙子胡亂, 1636~1637)을 기점으로 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으로 큰 변화가 생겼다. 기존의 성리학(性理學)에 반발하고 실학사상(實學思想)이 대두되었으며 신분제도가 흔들리기 시작했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는 복식문화에도 영향을 미쳐 남자 복식 중 표의(表意)로 착용된 포(袍)는 종류가 분화되었고 다양한 형태가 생겨났다.¹⁾

포는 왕부터 평민에 이르기까지 남녀 모두 착용하였으며, 상고시대부터 방한의 목적으로 사용되었다. 조선시대에 이르러 예(禮)를 갖추기 위한 용도로 착용하였고, 사인(士人)들은 평소에도 관모(官帽)를 쓰고 포를 입어 예의를 갖추었다. 예를 중시하고 남성 중심의 사회로 표의로 입은 포가 신분 계급과 용도에 의해 다양한 형태로 발달하였다. 포는 시대에 따라 모양이 변화하며 그 당시 사람들의 미적(美的) 취향과 의복에 대한 선호가 담겨져 있는 중요한 연구 자료이다.

우리나라 전통복식은 직선으로 이루어진 평면구성 의복으로 착용 시 불편함이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주름이나 트임을 주기도 하며 천을 덧대기도 하였다. 조선시대 남자 포의 겨드랑이 아래 길의 옆선에 천을 덧대어 품을 넓혀 활동성을 주었으며, 이를 무라고 불리워졌다. 무는 기능성의 목적에 의해 부착되었으며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장식성의 특징도 가졌음을 알 수 있다. 무의 유형과 형태는 포의 종류나 형태를 결정짓고 시대를 판별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현재까지 조선시대 복식 중 무에 대한 선행연구로 이은주(1998)²⁾는 단령과

1) 안명숙·김용서(2006), 한국복식사, 서울:예학사, pp.72-74.

2) 이은주(1998), 도포 양식의 발전에 대한 갈등·기능론적 분석,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

직령의 무를 다중안주름형·대소안팍주름형·대형박주름형·뒤젓힘 대주름형·뒤젓힘 사다리꼴형의 다섯 가지로 분류하였으며, 도포는 한관의 유무에 따라 시대별 모양 변천을 기준으로 각각 다섯 가지 종류로 무의 형태를 세분화하여 변화를 고찰하였다. 이주영·권영숙(2003)³⁾은 직령을 옆자락의 유무에 따라 안주름형·안팍주름형·박주름형·뒤젓힘형·옆막힘형·옆트임형으로 분류하였다. 최은수(2007)⁴⁾는 단령의 무를 다중안주름형·대소안팍주름형·대형박주름형·뒤젓힘대주름형·뒷길고정형무·두루마기형무 등 여섯 가지로 나누어 설명하였고, 송미경(2009)⁵⁾은 답호의 무를 대소안팍주름무·안팍주름무·조선후기 단령의 무로 나누었다.

이러한 무에 대한 선행연구는 조선시대 남자의 특정 포에 국한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무의 형태변화가 나타나는 단령(團領), 직령(直領), 창의(斨衣), 도포(道袍), 답호(搭襖), 주의(周衣)로 여섯 종류의 포로 연구 범위로 설정하였다. 조선시대의 출토 복식과 유물 중 시대별로 무가 나타나는 대표적인 포를 선정하여 일반적인 특징과 시대별 형태 변천을 고찰하였고 무의 구조와 형태 변화에 중점을 두어 조형적 특성과 유형 분석을 통해 조선시대의 남자 포가 어떻게 변천되었는지 알아보는 것에 목적이 있으며, 이를 통해 조선시대 남자포의 특징을 보다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는 것에 의의를 갖는다. 조선시대 남자포의 무의 형태 변화를 분석하기 위해 출토복식과 유물을 참고하였으며 이러한 출토복식과 유물은 조선시대의 복식 문화를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조선시대에서 현재까지 전해진 유물이나 묘에서 출토된 포를 선별하여 피장자의 몰년(沒年)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시대를 나누어 구분하였다. 조선 초기는 건국 초기부터 16세기까지, 조선중기는 17세기, 조선후기는 18세기에

학위논문

3) 이주영·권영숙(2003), 조선시대 직령의 유형과 특성, 53(6), pp.25-43.

4) 최은수(2007), 조선시대 백관의 단령, 서울:민속원.

5) 송미경(2009), 조선시대 답호 연구, 복식, 59(10), pp.51-67.

서 19세기 중반까지, 말기는 19세기 중반에서 20세기로 분류하였다.

본 연구의 방법은 조선시대 남자 포에 나타난 무의 형태변화를 고찰하기 위해 한국복식사 및 출토복식의 복식, 유물 관련 단행본, 논문, 박물관 도록과 자료들을 참조하였다.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조선시대 남자 포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통하여 조선시대 남자 포 중에서 단령, 직령, 창의, 도포, 답호, 주의에 대한 포의 특징과 형태 변화를 살펴본다. 둘째, 무의 용어를 설명하고 선행연구에서 연구된 무의 형태 및 구조를 참고하여 분석한다. 셋째, 출토복식과 유물을 통해 알아본 조선시대 남자 포의 무의 형태 변화를 통해 각 시대별 무의 유형과 형태로 무의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조선시대 남자 포의 종류 및 특징

1) 단령(團領)

단령은 단령의(團領衣), 단령포(團領袍), 단령삼(團領衫), 원령(圓領), 원령의(圓領衣), 원령포(圓領袍) 등으로 불리워졌다⁶⁾. 「경국대전(經國大典)」에 백관(百官)의 관복(官服)으로 제정되어 있고,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를 보면 습(襲)에 답호(答褱), 칠릭(帖裏)과 함께 단령이 포함되어 있다. 서민에게는 평생에 한 번 혼례 때 착용 할 수 있는 최고의 의례복이었다.

단령은 둥근 깃이 특징으로 곡령(曲領)에서 유래되었다. 「삼국지(三國志)」에서는 남녀의 개착곡령(男女衣皆着曲領)으로 나타나며, 고구려의 기원이 되는 종족인 예(濊)에서 곡령을 착용하였고⁷⁾, 고구려 고분벽화의 덕흥리 벽화 무덤(그림 2)과 감신무덤 앞방동벽감실에 있는 벽화(그림 3)에서 곡령 착용을 볼 수 있다. 후에 곡령에 깃을 부착하여 단령으로 되었는데 부여 농산리 집터 유적에서 발굴된 백제금동대향로에는 신선이 곡령을 입은 모습(그림 4)이 조각되어 있으며, 관모로 복두(幘頭)나 호모(胡帽)를 쓰고 단령을 착용한 통일신라시대의 용강동 토용(그림 5)이 있다.

6) 고복남(1984), 한국전통복식사연구, 서울:일조각, p.228.

7) 국립민속박물관(2004), 남오성 묘 출토복식, 서울:국립민속박물관, pp.98-99.



<그림 2> 덕흥리 벽화무덤
(출처:이영훈·신광섭(2004a), p.34)



<그림 3> 감신무덤
앞방동벽감실 벽화
(출처:국립광주박물관(2004), p.10)



<그림 4> 백제금동대향로의
곡령착용모습
(출처:국립청주박물관(1996),
p.17)



<그림 5> 용강동 토용
(출처:이영훈·신광섭(2004b), p.143)

통일신라시대 진덕여왕(眞德女王) 2년(648)에 김춘추(金春秋)가 당(唐)나라로부터 단령을 사여(賜與)받아 관료(官僚)들의 의복으로 사용하였고, 고려시대 말기에는 명(明)나라에서 단령을 하사(下賜)받았는데, 우왕(禡王) 12년(1386) 정몽주(鄭夢周)가 명(明)에 가서 관복(官服)을 청하고 난 후부터 명(明)의 단령제도를 참고하여 고려시대의 단령제도는 사모(紗帽), 단령, 품대(品帶), 흑화(黑靴)로 하였다⁸⁾. 또 우왕 13년(1387) 명나라에 사신(使臣)으로 간 설장수(偁長壽)가 명(明)의 초대(初代) 황제인 홍무제(洪武帝, 1328~1398)에게 사모와 함께 단령을 하사받은 기록⁹⁾이 있다. 조선시대 국왕은 세종(世宗) 25년(1443)까지는 익선관(翼善冠)과 곤룡포제(袞龍袍制)로 이루어진 국제(國制)의 전통적인 상복(常服)을 착용하였으나, 세종 26년(1444) 최초로 명(明)의 친왕례(親王禮)에 따른 익선관, 철릭(天翼), 답호(襜褕), 곤룡포, 옥대(玉帶), 화(靴)의 복제(服制)를 착용하였다¹⁰⁾.

단령은 임진왜란을 전후로 깃의 파임이나 앞뒤 길의 옆선에 달린 무 또는 소매의 넓이에 따라 시대별 형태 변화가 나타난다. 조선 초기의 단령은 둥근 깃의 파임이 얇았고 소매는 착수형(窄袖形)이며 무는 직사각형 형태로 위가 접혀 있다(그림 6). 중기에는 초기보다 깃의 파임이 깊어졌고 소매는 가운데의 배래가 더 넓어진 절구통 모양이 나타났다. 무는 직사각형 형태에 무의 바깥쪽에만 접혀있다(그림 7). 후기 단령의 깃은 중기보다 더욱 깊게 파여 소매는 두리소매에 광수형(廣袖形)으로 무는 사다리꼴 모양이 뒤로 젖혀진 모습이 보인다(그림 8). <그림 9>은 무가 뒤로 젖혀진 단령과 모양이 같으나 윗무가 뒷길에 매듭단추로 고정되었다. 말기에는 뒤로 젖혀진 무가 후기에 나타난 것처럼 뒷길에 매듭단추로 고정되거나 바느질(그림 10)로 고정되었고, 주의(周衣)와 비슷한 형태인 삼각형 무에 옆에 트임이 없는 단령도 나타났다(그림 11). 초기에는 홀단령(單團領)으로 직령이나 답호 등을 안

8) 이은주·조효숙·하명은(2005), 17세기 무관 옷 이야기, 서울:민속원, p.52.

9) 김영숙(1998), 한국복식문화사전, 서울:미술문화, p.118.

10) 임명미(1996), 한국의 복식문화Ⅱ, 서울:경춘사, p.180.

에 갖춰 입어 일습(一襲)으로 착용했던 것이 임진왜란 후에는 겹단령(袂團領)으로 변하여 직령을 단령 안에 끼워 놓고 징군 형태로 직령이 단령의 안감 역할을 하였다. 후기에는 안감으로 사용된 직령이 사라져 홑단령으로 되었으나 단령의 안감에 직령의 깃이 부착되어 두 겹의 옷을 입은 것처럼 보이게 되면서 예전보다 착장이 간편해졌다¹¹⁾.

시대에 따라 단령의 형태가 달라짐에 따라 색상과 소재에도 변화가 있었는데 조선 초기에는 일정한 색이 정해지지 않아 홍(紅)·청(靑)·녹(綠)·흑(黑)·남(藍)·백(白)색으로 다양한 색상이었다¹²⁾. 성종(成宗) 16년(1485) 완성된 「경국대전(經國大典)」에는 품계(品階)에 따른 관복제도를 정하고 색상을 규제하여 아청색(鴉靑色)과 토홍색(土紅色)의 단령을 착용하도록 하였으며¹³⁾, 영조(英祖) 22년(1746)에 편찬된 법전(法典)인 「속대전(續大典)」에서 공복(公服)과 상복(常服)으로 사용된 단령을 현녹색(玄綠色)과 담홍색(淡紅色)으로 정하였다¹⁴⁾. 고종(高宗) 21년(1884) 문무관리들의 상복(常服)과 시복(時服)의 단령 색을 흑단령(黑團領)으로 하였으며 예복의 경우에는 소매가 넓은 것을 대례복(大禮服)으로 착용하도록 하였고, 소매가 좁은 것은 소례복(小禮服)으로 착용하게 하였다¹⁵⁾.

고종 31년(1894) 갑오경장(甲午更張)에 의해 의복의 간소화 경향이 나타났으며 국군기무처(軍國機務處)에서 조관(朝官)의 단령 제도를 착수단령(窄袖團領), 사모(紗帽), 품대(品帶)로 바꾼 것에서 의복의 간소화 경향을 알 수 있다¹⁶⁾. 광무(光武) 4년(1900) 문관의 복장을 단령 대신 서구식 관복으로 하여 이후 단령은 혼례복으로만 착용되었다¹⁷⁾.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11) 문화재청(2006), 문화재대관:중요민속자료2 복식.자수편, 대전: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 p.191.

12) 이은주(1998), 전계서, p.74.

13)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2006), 환생, 서울: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p.154.

14) 문화재청(2006), 전계서, p.102.

15) 국립민속박물관(2004), 전계서, p.99.

16) 문화재청(2006), 전계서, p.198.

17) 국립민속박물관(2004), 전계서, p.99.



<그림 6> 16C초 김흠조 단령
(출처:문화재청(2006), p.363)



<그림 7> 17C초 박장군 단령
(출처:문화재청(2006), p.319)



(앞)



(뒤)

<그림 8> 18C중 이직 단령
(출처: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2004), p.97)



(a)



(b)

<그림 9> 의원군 이혁 단령
(출처:경기도박물관(2004a), p.289)



<그림 10> 19C 윤용구 단령
(출처: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2012), p.68)



<그림 11> 19C 김병기 단령
(출처:문화재청(2006), p.134)

<표 1> 시대에 따른 단령의 변화

구분 시대	형태			구성	색상	소재	그림
	깃	소매	무				
초기 (15C ~16C)	등근깃	착수형	직사각형	홀이나 겹으로 구성	남색 녹색 백색 청색 홍색 흑색	견(絹) 단(緞) 면(綿)	
							
중기 (17C)	등근깃	콩깍지형	직사각형 사다리꼴	홀이나 겹으로 구성	아청색 토홍색	견(絹) 단(緞) 라(羅) 면(綿) 주(紬)	
							
후기 (18C~ 19C중)	등근깃	광수형 두리소매	사다리꼴	겹으로 구성되 며 안에 직령 을 덧입어 단 령의 안감으로 착용	담홍색 현녹색	단(緞) 릉(綾)	
							
말기 (19C중 ~20C)	등근깃	광수형 두리소매	삼각형	단령의 안깃에 직령 깃을 부 착	담홍색 자주색 현녹색	사(絲) 주(紬)	
							

2) 직령(直領)

고려시대 말 우왕(禡王) 1년(1387) 관복 개정 시 직령이라는 용어가 처음 언급되었으며 당시에는 천인(賤人)과 서인(庶人)의 관복으로 정하였다¹⁸⁾. 고려시대 후기 「노걸대(老乞大)」 언해본(諺解本)에서 직령의 기록이 나타나고 중국의 포 중에서 직령과 형태가 비슷한 ‘의살(衣撒)’, ‘직신(直身)’이 덕녕으로 언해된 기록을 볼 수 있다. 직령이라는 명칭은 중국의 포와 일치하는 것은 없으며 우리나라에서만 나타난다¹⁹⁾.

직령은 깃이 곧은 형태에서 유래되어²⁰⁾, 단령과는 깃 모양만 다르며 전체적인 형태는 단령과 같아 시대적인 변화가 동일하게 나타난다. 직령에서 시대별로 변화가 나타나는 구성요소는 깃, 소매, 무가 있다.

조선시대 초기의 직령은 겹깃과 안깃이 목판깃에 소매는 착수형이고 무는 직사각형에 윗부분이 사선으로 접혀진 모습이며(그림 12), 중기는 칼깃에 콩각지형의 소매로 변하였고 무는 사다리꼴형에 윗부분이 뾰족하게 올라간 형태이다(그림 13). 후기에는 칼깃에 광수인 두리소매이며 옆트임이 없는 삼각형 무의 직령으로 변하였다(그림 14). 초기에는 홑옷으로 착용되다가 점차 단령의 받침옷으로 사용되었으나, 임진왜란 후에는 단령의 안감처럼 바느질로 고정되었고²¹⁾, 조선시대 말기에는 단령의 안깃에 직령의 깃이 부착되어 직령의 착용이 줄어들었다.

조선시대 초기의 대표적인 남자 포인 직령은 주로 외출 시나 의례 때 착용하였다²²⁾. 초기의 직령은 단령 다음으로 많이 착용되는 편복(便服)이었으나 임진왜란 후 직령의 착용이 줄어들었는데, 이는 직령이 사대부들에게만 착용이 허용되었으나 무관이나 하급관리들이 입기 시작하자 사대부들은 직령의 형태를 바꾼 도포(道袍)를 착용²³⁾하기 시작하였다. 다른 요인으로는 임진왜란

18) 이주영·권영숙(2003), 전계서, p.26.

19) 국립민속박물관(2004), 전계서, p.100.

20) 류정순(2010), 근세 한일 남자 포의 조형적 특성 비교 연구, 경성대학교 박사학위논문, p.41.

21)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2006), 전계서, p.155.

22) 문화재청(2006), 전계서, p.357.

이후에 도포, 심의(深衣), 중치막, 창의, 주의 등 포가 다양하게 발달하여²⁴⁾ 용도에 따른 포의 선택이 넓어져 직령의 착용이 줄어든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고종(高宗) 21년(1884) 사복개혁령으로 의복 간소화로 인해 직령의 착용이 금지되었으며, 고종 32년(1895) 이후 직령 대신 주의를 착용하도록 하였다²⁵⁾. 시대에 따른 직령의 형태 변화를 정리하면 다음 <표 2>와 같다.



<그림 12> 16C초 김흠조 직령
(출처:문화재청(2006), p.364)



<그림 13> 17C초 김확 직령
(출처:경기도박물관(2007), p.289)



<그림 14> 19C중 홍희준 직령
(출처: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2004), p.77)

23) 김영숙(1998), 전계서, p.348.

24) 국립민속박물관(2004), 전계서, p.100.

25) 김영숙(1998), 전계서, p.348.

<표 2> 시대에 따른 직령의 변화

구분 시대	형태			구성	색상	소재	그림
	깃	소매	무				
초기 (15C ~16C)	겹:목판깃 안:목판깃	착수형	직사각형	초기의 단령의 형태과 유사	소색	견(絹) 면(綿)	
							
중기 (17C)	겹:칼깃 안:목판깃	콩깍지형	직사각형 사다리꼴	중기의 단령의 형태와 유사하며 단령의 안감으로 사용	소색 토홍색	단(緞) 사(絲) 주(紬)	
							
후기 (18C~ 19C중)	칼깃	광수형 두리소매	삼각형	옆이 막힌 주의와 비슷한 무 형태로 단령의 안감으로 사용	소색	주(紬) 단(緞)	
							
말기 (19C중 ~20C)	-	-	-	-	-	-	-
	-	-	-				

3) 창의를(淸衣)

창의는 중국의 포제(袍制) 중에 트임이 있는 포에서 영향을 받아 국속화 된 것으로 유래 시기는 정확하지 않으나²⁶⁾, 우리나라에는 임진왜란 이후부터 널리 착용되어 보편화되었다²⁷⁾. 옷의 어느 한 부분이 처져 있는 상태에서 창의라는 용어가 나타났다²⁸⁾.

조재삼(趙在三)의 「송남잡지(松南雜識)」의 창의에 대한 기록²⁹⁾으로 보아 뒤트임이 있는 포가 창의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영조(英祖) 2년(1695) 무신(武臣)의 복제(服制) 논의 시 용복(戎服)으로 첼릭(帖裡)대신 창의를 입기 시작하였고, 정조(正祖) 17년(1793) 논의 시 청색과 백색의 창의가 관복으로 혼용된 기록이 있다³⁰⁾. 순조(純祖) 34년(1834) 문음관(文蔭官)의 관복이 첼릭에서 창의로 변하여³¹⁾, 조선시대 전기에 첼릭 대신 창의로 바뀌는 양상을 알 수 있다.

창의는 옆선이나 뒷중심에 트임이 있는 것이 특징으로 소매너비, 무의 유무, 트임의 위치에 따라 대창의, 중치막, 소창의, 학창의로 분류 된다³²⁾. 창의는 다른 포에 비해 출토 복식의 수가 많은 것³³⁾으로 보아 조선시대에 즐겨 착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창의가 네 가지의 종류로 분화되어 용도에 따라 포를 골라 입을 수 있다는 장점으로 인한 것이었다라고 판단된다.

26) 윤미화(1982), 창의류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20.

27) 류정순(2010), 전계서, p.50.

28) 안명숙·김용서(2006), 전계서, p.110.

29) 이은주·조효숙·하명은(2005), 전계서, p.64.

30) 국립민속박물관(2004), 전계서, p.106.

31) 상계서, p.106.

32) 안명숙(2012), 조선시대 중기 출토복식 중 포류에 관한 연구, 남도민속연구, 24(-), p.181.

33) 홍나영(2008), 출토복식을 통해서 본 조선시대 남자 편복포의 시대구분, 복식, 58(5), p.131.

(1) 대창의(大擘衣)

대창의는 넓은 소매에 무가 있으며 뒷중심과 양옆 아래가 20~30cm 정도 트여³⁴⁾, 품은 넓지만 트임으로 인해 활동의 편의성으로 많이 착용되었다. 대창의는 조선시대 초기에는 보이지 않으나 창의를 분화로 중기부터 대창의가 나타나 그 형태는 칼깃에 소매는 광수형의 두리소매로 옆선에 큰 삼각형의 무가 부착되어 있다(그림 15). 조선시대 후기의 대창의(그림 16)와 말기의 대창의(그림 17)는 중기의 대창의보다 소매가 조금 넓어진 것을 제외하고 형태가 동일하며 시대별 변화는 거의 없다.

사대부는 외출복이나 도포 대신 대창의를 착용하였으며³⁵⁾, 허리에는 세조대를 띠고 관모로는 복건(幅巾), 정자관(程子冠), 동파관(東坡冠) 등을 착용하였다³⁶⁾. 넓은 소매에 양 옆에 큰 무가 달리고 뒤에 트임이 있는 점은 도포와 비슷하지만 뒷자락인 전삼(展衫)이 없는 점이 다르다. 고종 21년(1884) 복제개혁으로 인해 다른 광수의(廣袖衣)와 함께 착용이 금지되었다³⁷⁾.



<그림 15> 17C후 최원립 대창의
(출처:이화여자대학교 박물관(2006), p.14)



<그림 16> 18C중 이직 창의
(출처: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2004), p.115)

34) 안명숙·김용서(2006), 전계서, p.110.

35) 윤미화(1982), 전계서, p.7.

36) 김영숙(1998), 전계서, p.130.

37) 유송옥(1988), 한국복식사, 수학사, p.241.



<그림 17> 19C 이연웅 대창의
(출처:경기도박물관(2002), p.92)

(2) 중치막(中致莫)

중치막은 ‘中赤莫’, ‘中致莫’, ‘中赤莫’으로 표기되어 있고,³⁸⁾ 뒷길의 가운데가 막혀있는 형태에서 유래된 명칭이며³⁹⁾, 임진왜란 이후 널리 착용되었다. 16세기 이문건(李文健)의 「묵재일기(默齋日記)」와 오희문(吳希文)의 「쇄미록(瑣尾錄)」에서 조선시대 초기의 중치막에 대한 기록⁴⁰⁾이 있다.

조선 초기 16세기에 최진(崔縝) 부인 묘에서 중치막(그림 18)이 출토되어 여자도 중치막을 착용하였음을 알 수 있고, 초기의 중치막은 칼깃에 착수이며 옆트임 쪽에 넓은 삼각무가 부착되어 있다. 중기의 17세기 전반의 중치막 형태는 칼깃에 통수(筒袖)이며 양 옆에 무가 달려 있으며 옆트임이 있어 세 자락으로 구성되어 있다(그림 19). 중기의 중치막은 옆선이 밖으로 향한 곡선으로 이루어져 있어(그림 20) 그 모양을 나타내기 위해서 무가 필요하였고 넓은 도련으로 인해 넓은 섶에 여밈도 깊었다⁴¹⁾. 후기 중치막의 소매는 전보다 넓어진 광수에 두리소매에 품이 좁아지면서 무가 필요 없게 되어 사라졌다(그림 21). 후기로 갈수록 밑자락 너비와 품이 줄어들어 무가 사라진 중치막이 보이며, 이는 무가 초기에는 겨드랑이 아래에 달리다가 후기로

38) 단국대학교출판부(2009a), 정사공신 신경유공 묘 출토복식, 용인:단국대학교출판부, p.204.

39) 윤미화(1982), 전계서, p.7.

40) 옛길박물관(2010), 중치막 자락에 깃든 사연, 서울:민속원, p.129.

41) 국립민속박물관(2010), 이진승 묘 출토복식, 서울:국립민속박물관 p.143.

갈수록 겹대기 형태로 밑단쪽에 곡선을 나타내기 위해 겹대기 형식으로 부착되었기 때문이다.

중치막은 창의에서 분화되어 나타난 것으로 대창의와 함께 널리 착용되었으나 임진왜란 이후 남자들의 대표적인 포로 신분에 관계없이 착용되었다. 사대부는 창의를 도포, 창의, 심의 등의 겹옷 안에 받쳐 입었고 서민들은 외출 시에 착용되었고 착용 시 세조대를 허리에 둘렀으며 신발로 혜를 신었다⁴²⁾. 조선시대 말기 고종 21년(1884)에 의복의 간소화로 소매가 넓은 포와 함께 중치막의 착용이 금지되어 좁은 소매인 주의의 착용이 장려되었다⁴³⁾.



<그림 18> 16C 최진 부인
중치막
(출처:옛길박물관(2010), p.54)



<그림 19> 17C초 김확 중치막
(출처:경기도박물관(2007), p.311)



<그림 20> 17C후 정재후 중치막
(출처:경기도박물관(2004a), p.284)



<그림 21> 18C초 홍진중 중치막
(출처:문화재청(2006), p.293)

42) 류희경(2008), 우리옷 이천년, 서울:미술문화, p.74.

43) 김영숙(1998), 전계서, p.346.

(3) 소창의(小擘衣)

소창의는 중치막이 좁은 소매로 변형되어 생긴 포로 조선시대 중기부터 소창의의 모습이 보인다. 형태는 곧은 깃에 좁은 소매로 무가 없으며 양 옆에 트임이 있고 뒷중심이 막혀 세 자락으로 이루어져 있다⁴⁴⁾. 조선 중기의 소창의는 겹깃은 칼깃, 안깃은 목판깃에 좁은 소매로 무가 없이 나타나며(그림 22) 후기에도 그 형태가 유지되고 변화가 없다(그림 23). 옷의 크기가 다른 포보다 작아 활동적으로, 사대부는 상복(常服), 편복(便服), 대창의의 받침옷으로 착용하였고. 서민들은 대창의의 착용이 금지되었으므로 겹옷으로 입었다. 하급관리나 낮은 신분 사람들은 외출복으로 사용하기도 하였다⁴⁵⁾.



<그림 22> 17C후 정재후 소창의
(출처: 경기도박물관(2004a), p.285)



<그림 23> 18C초 홍진중 소창의
(출처:문화재청(2006), p.295)

(4) 학창의(鶴擘衣)

학창의에 대한 기록은 조선시대에 편찬된 신라 초기부터 고려 말기까지 역사가 서술되어 있는 「동국통감(東國通鑑)」에서 괘여(郭輿)가 조건(鳥巾)과 학창의 차림으로 있었다⁴⁶⁾고 하여 고려시대에도 착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학창의는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에 걸쳐 덕망(德望) 있는 선비가 입던 포로

44) 유송옥(1988), 전계서, p.239.

45) 김영숙(1998), 전계서, p.248.

46) 이민주(2005), 옥소 권섭의 학창의에 관한 연구, 복식문화연구, 13(2), p.273.

예로부터 신선(神仙)이 입는 옷이라 하였다⁴⁷⁾. 유학자(儒學者)들의 연거복 또는 공복(公服), 조복(朝服)과 제복(祭服)의 받침옷으로 착용하였으며, 사대부의 상복(常服), 사신복(使臣服), 습의(襲衣) 등으로 사용되었다.⁴⁸⁾

형태는 대창의와 동일하며 끈은 깃에 소매가 넓으며 무가 있다⁴⁹⁾. 흰색의 대창의에 깃·도련·수구 등 가장자리에 검은 선을 두른 학창의(그림 24)는 옷의 색으로 인해 심의와 유사한 포로 볼 수 있지만 심의는 의(衣)와 상(裳)을 따로 재단하여 연결하였고 깃이 대금형으로 형태가 다르다⁵⁰⁾.

청색 학창의에 대한 기록은 「고종실록(高宗實錄)」에서 남색 비단으로 의(衣)를 만들고 청흑색(靑黑色) 단을 달았는데 그 연(緣)이 소매 끝까지 닿았다⁵¹⁾라고 하였으며 유물로는 이화여자대학교 박물관 소장 고종(高宗)의 조복 받침으로 입었던 명주로 만든 청초중단(靑綃中單)(그림 25)이 있다. 관모는 동파관(東坡冠), 정자관, 와룡관을 착용하였으며, 망건(網巾)이나 복건을 쓰기도 하였다⁵²⁾.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 <표 3>과 같다.



<그림 24> 19C 학창의
(출처: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2004), p.136)



<그림 25> 19C후 고종 청초중단
(출처:문화재청(2006), pp.173)

47) 유희경·김문자(2006), 한국복식문화사, 서울:교문사, p.240.

48) 류정순(2010), 전계서, p.54.


49) 유희경(2008), 전계서, p.74.


50) 홍나영(2008), 전계서, p.131.

51) 상계서, p.274.

52) 유희경·김문자(2006), 전계서, p.240.

<표 3> 시대에 따른 창의 변화

시대	구분	형태			구성	색상	소재	그림
		깃	소매	무				
초기 (15C ~ 16C)	대창의	-	-	-	-	-	-	-
	중치막	칼깃 	통수형 	사다리꼴 	양옆의 아래쪽에 트이고 겨드랑이에 당이 부착	아청색	주(紬)	
	소창의	-	-	-	-	-	-	-
	학창의	-	-	-	-	-	-	-
중기 (17C)	대창의	겉:칼깃 안:목판깃 	광수형 두리소매 	삼각형 	양옆과 뒤가 트임	토홍색	면(綿) 주(紬)	
	중치막	겉:칼깃 안:목판깃 	통수형 	삼각형 	양옆이 트임	소색	면(綿) 능(綾) 주(紬)	
	소창의	-	-	-	-	-	-	-
	학창의	-	-	-	-	-	-	-

후기 (18C~ 19C중)	대 창 의	칼깃	광수형 두리소매	삼각형 사다리꼴	양옆과 뒷중심 이 트임	소색	단(緞) 주(紬)	
								
	중 치 막	겉:칼깃 안:목판깃	광수형 두리소매	-	양옆이 트임 무가 사라짐	소색	단(緞) 주(紬)	
								
	소 창 의	칼깃	광수형 두리소매	-	양옆이 트임	소색 갈색	단(緞) 주(紬)	
								
	학 창 의	칼깃	광수형 두리소매	삼각형	대창의와 동일 한 형태	백색	주(紬)	
								
말기 (19C중 ~20C)	대 창 의	겉:칼깃 안:목판깃	광수형 두리소매	삼각형	양옆과 뒷중심 이 트임		초(綃)	
								
	중 치 막	-	-	-	-	-	-	-
		겉:칼깃 안:목판깃	착수형	-	양옆이 트임			
								
	학 창 의	칼깃	광수형 두리소매	삼각형	대창의와 동일 한 형태	청색	주(紬)	
								

5) 도포(道袍)

도포는 시대에 따라 ‘도복(道服)’, ‘도포(道袍)’, ‘도삼(道衫)’ 등으로 불리워졌으며⁵³⁾, 도사(道士)들이 착용해서 도포가 생겨났으나 직령에서 형태가 변화되어 나타난 것으로 보기도 한다⁵⁴⁾.

16세기 명(明)나라로 간 조선인이 도포와 소모자(小帽子)를 쓰고 명나라 사람인 척 하다가 들켰다는 기록⁵⁵⁾으로 보아 도포의 기원은 중국이며 조선과 명나라에서 도포를 즐겨 착용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조선시대에는 명종(明宗) 19년(1564) 처음 도포에 대한 기록이 나타나며, 효종(孝宗) 16년(1626) 임진왜란 후 도포의 착용제도가 생긴 것⁵⁶⁾으로 보아 조선 중기부터 도포가 착용되었다.

도포의 일반적인 형태는 끈은 깃에 넓은 소매이며 앞길에 무가 있고 앞무가 연장되어 뒷길이나 한판(汗版)에 고정되어 그 위에 전삼(展衫)이라는 뒷자락이 붙어 있다⁵⁷⁾. 한판은 어깨바대가 등까지 연장되어 내려와 이엽삼의 윗부분과 연결되는 부분으로 한판은 뒷길에 이엽삼을 고정하기 어려운 홀도포에서 나타난다⁵⁸⁾. 겹도포의 이엽삼은 뒷길 안감에 고정되어 한판이 없으며, 한판, 이엽삼, 전삼의 구성요소는 다른 포에는 나타나지 않는다.

다른 포와 달리 뒷자락이 두 층으로 되어 있는 형태는 도포에서만 보여지는 특징이다. 깃, 소매, 무의 모양과 트임, 한판의 유무에 의해 시대별로 형태 변화가 나타난다. 조선시대 초기에는 도포가 널리 착용되지 않아 그 유물을 보기 힘들며 중기부터 나타나는데, 중기의 도포는 목판당코깃에 소매는 광수로 변해가는 과도기적 형태이다. 앞무는 삼각형이고 이엽삼이 연결되어 있으며 겹으로 구성된 경우 뒷길 안쪽에 이엽삼의 윗부분이 고정되었

53) 임명미(1996), 전계서, p.179.

54) 문화재청(2006), 전계서, pp.261-262.

55) 상계서, p.261.

56) 김영숙(1998), 전계서, p.133.

57)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2006), 전계서, p.159.

58) 홍나영(2008), 전계서, p.128.

다.(그림 26) 후기의 도포에는 당코깃에 광수형의 두리소매가 나타나며 품이 중기보다 넓어졌고(그림 27), 품이 넓은 도포(그림 28)도 존재하였다. 말기의 도포(그림 29)는 후기의 도포와 형태가 유사하다.

조선시대 전기에는 신분복식의 기능이 강해 고위 관직만 착용하였으나 임진왜란 이후 도포의 착용이 보편화되어 나중에는 신분이 낮은 사람도 도포를 착용하여⁵⁹⁾, 조선 후기에 신분제가 문란해졌음을 알 수 있다. 도포 착용 시에는 유건(儒巾)이라는 관모에 허리에 세조대를 두르고 혜를 신었다⁶⁰⁾.

말기에 갑신혁명(1884)으로 인해 의복의 간소화 경향으로 다른 광수포(廣袖袍)와 함께 도포를 금지하여 주의의 착용을 장려하였으나 광무(光武) 원년(1897)에 무관직자와 사대부의 예복으로 되었다⁶¹⁾.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표 4>와 같다.



(앞)

(뒤)

<그림 26> 17C초 신경유 도포
(출처: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2009a), pp.54-55.)

59) 홍나영(2008), 전계서, p.127.

60) 임명미(1996), 전계서, p.175.

61) 이은주(1998), 전계서, p.5.



(앞)



(뒤)

<그림 27> 18C초 의원군 이혁 도포
(출처:경기도박물관(2004a), p.287)



<그림 28> 19C 도포
(출처:단국대학교
석주선박물관(2004), p.116)



<그림 29> 20C 도포
(출처:국립민속박물관(2005),
p.152)

<표 4> 시대에 따른 도포의 변화

구분 시대	형태			구성	색상	소재	그림
	깃	소매	앞무				
초기 (15C ~16C)	-	-	-	-	-	-	-
	-	-	-				
중기 (17C)	목판 당코깃	광수형	삼각형	·앞무에 이엽삼이 연결 ·이엽삼이 한판이나 뒷길안감에 고정	갈색 소색 아청색	단(緞) 주(紬) 초(綃)	
							
후기 (18C~ 19C중)	당코깃	광수형	삼각형	·앞무에 이엽삼이 연결 ·이엽삼이 한판이나 뒷길안감에 고정	녹색 소색	단(緞) 주(紬)	
							
말기 (19C중 ~20C)	당코깃	광수형 두리소매	삼각형	·앞무에 이엽삼이 연결 ·이엽삼이 한판이나 뒷길안감에 고정 ·무의 크기가 커졌으며 품도 넓어짐	소색 옥색	저(紵)	
							

6) 답호(答褱)

소매가 없는 남성용 의복으로 ‘답호(答褱)’, ‘답홀(答忽)’, ‘더그레’ 라고 한다.⁶²⁾ 답호는 고려시대 중기 원나라에서 들어왔으며⁶³⁾, 고려시대부터 착용되어 조선시대에는 임진왜란 후부터 착용이 줄어들었다⁶⁴⁾. 왕은 답호를 곤룡포 안에 입었고 사대부는 포 안에 답호를 착용하거나 겉옷 위에 착용하였다⁶⁵⁾. 말기에는 답호의 형태와 용어가 바뀌면서 전복(戰服)이나 전포(戰袍)라고 불렀는데 이는 답호와 차별되는 독립적인 포로 군에서 종사하는 하급관리나 천한 관직[조예(早隸)]이 주의 위에 착용하였다⁶⁶⁾.

형태는 끈은 것에 소매가 짧거나 없는 것이 특징이며 옆트임이 있다. 초기에는 칼깃에 소매는 반수이며 길의 옆에 위가 접혀있는 무가 달려 있고(그림 30), 중기의 답호는 칼깃에 반수형으로 초기보다는 넓은 직사각형 무가 부착되었고(그림 31), 후기는 소매가 없어진 칼깃에 삼각형 무가 달려있는데 이는 전복으로 바뀌는 과도기형의 답호이다(그림 32). 말기는 맞깃에 소매가 없고 양옆에 삼각형무가 달려있으며 뒷중심과 양옆에 트임이 있으며⁶⁷⁾, 후기와 다르게 매듭단추가 추가되어 옷고름과 함께 앞을 여몄다(그림 33). 답호의 소매가 없어진 것은 직령의 소매가 두리소매로 바뀐 시대와 일치하며⁶⁸⁾, 직령이 두리소매로 정착된 이후에는 소매가 없는 전복형의 답호를 착용하는 것이 적합했을 것이다.

조선시대 말기 고종(高宗)이 갑신년(甲申年)에 광수의를 폐지 할 때 착수의(窄袖衣), 전복, 사대(絲帶)로 조신(朝臣)의 상복(常服)으로 삼게 되면서⁶⁹⁾ 답

62) 국립민속박물관(2005), 한민족 역사 문화도감:의생활:국립민속박물관 소장품, 서울:국립민속박물관, p.141.

63) 송미경(2009), 전계서, p.52.

64)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2006), 전계서, p.156.

65) 김영숙(1998), 전계서, p.122.

66) 안명숙·김용서(2006), 전계서, p.106.

67) 문화재청(2006), 전계서, p.141.

68) 홍나영(2008), 전계서, p.127.

69) 임명미(1996), 전계서, p.167.

호가 전복으로 바뀌었음을 알 수 있다. 갑오경장(甲午更張) 때는 주의 위에 답호를 입게 하여 조신의 통상예복으로 하도록 하였는데⁷⁰⁾, 이는 과거 철릭 위에 답호를 입은 것과 같이 그 구의(舊儀)를 지켰음을 알 수 있다.



<그림 30> 16C초
김흠조 답호
(출처:문화재청(2006),
p.365)



<그림 31> 17C초 윤선언
답호
(출처: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2009b),
p.24)



<그림 32> 18C초 이변
답호
(출처: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2004),
p.110)



<그림 33> 19C 정원용
답호
(출처:문화재청(2006), p.141)

70) 유희경·김문자(2006), 전계서, p.236.

<표 5> 시대에 따른 답호의 변화

구분 시대	형태			구성	색상	소재	그림
	깃	소매	무				
초기 (15C ~16C)	겉:칼깃 안:목판깃	반수형	직사각형	동시대 직령과 형태가 동일	갈색 소색 담황색	주(紬)	
							
중기 (17C)	칼깃	반수형	직사각형	동시대 직령과 형태가 동일	갈색 담황색	단(緞) 능(綾)	
							
후기 (18C~ 19C중)	칼깃	-	삼각형	전복으로 바뀌 어가는 과도기 적 형태	갈색 담황색	단(緞) 주(紬)	
		-					
말기 (19C중 ~20C)	맞깃	-	삼각형	옆과 뒤에 트 임이 있고 앞 중심에 매듭단 추가 부착	소색	사(絲)	
		-					

7) 주의(周衣)

주의는 끈은 것에 옷의 사방에 트임이 없고 두루 막혀 있는 모습에서 나온 말이며 두루마기라고 한다⁷¹⁾. 두루마기의 어원은 ‘두루’와 ‘막이’의 합성어이며 ‘주막의(周莫衣)’, ‘주방의(周防衣)’, ‘주차의(周遮衣)’ 등 다양한 용어로 기록되어 있다.⁷²⁾

트임 없이 두루 막힌 포는 삼국시대부터 착용하여 통일신라, 고려, 조선시대를 거치면서 두루마기가 되었고 현재까지 착용되는 포이다⁷³⁾. 형태는 착수에 양 옆에 삼각형 무가 있으며 양 옆이나 뒷중심에 트임 없이 모두 막혀 있는 것⁷⁴⁾이 일반적이거나 옆선에 손을 넣기 위해 일부분만 트여 있는 형태도 있다.

형태와 구조상으로는 그 역사가 오래 되었으나 조선시대에는 후기부터 널리 착용되기 시작하였다. 16세기의 심수륜(沈秀崙) 묘에서 출토된 주의(그림 34)과 18세기 초기 의원군(義原君) 묘에서 출토된 주의(그림 35)는 넓은 소매에 삼각형의 무가 부착되어 있어 조선 초기와 후기에는 소매가 넓은 주의가 착용됨을 알 수 있다. 중기의 유물은 보기 어려우나 초기와 후기의 주의가 비슷한 것으로 보아 형태를 추측할 수 있다. 말기에는 소매가 좁아지기 시작하여(그림 36) 20세기에는 현재까지 전해지고 있는 두루마기 형태(그림 37)가 보인다.

문무백관들은 통상예복(通常禮服)으로 사용하였고 사인(士人)들은 사복(私服)으로 착용하여 일반인들까지 널리 입게 되었고⁷⁵⁾, 양반계급에서는 겹옷으로 착용하였는데 이는 도포나 광수의 착용이 금지되어 있었기 때문이다⁷⁶⁾. 후기에는 소창의를 편복의 받침옷이나 서민의 겹옷으로 많이 착용하

71) 최정옥(2007), 조선시대 편복포에 관한 연구, 한국디자인학회 학술대회, 2007(6) p.88.

72) 이경민(2005), 주의의 보편화의 과정과 요인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15.

73) 국립민속박물관(2005), 전게서, p.155.

74) 유송옥(1988), 전게서, p.245.

75) 유희경·김문자(2006), 전게서, p.241.

여 주의의 착용사례가 많지 않았다⁷⁷⁾.

고종 21년(1884) 5월 갑신의회개혁 때 사복(私服)으로 넓은 소매인 포들을 폐지하고 남녀 모두 좁은 소매인 주의를 입게 했다⁷⁸⁾.



<그림 34> 16C 심수륜 주의
(출처:경기도박물관(2004b), p.28)



<그림 35> 18C초 의원군 이혁 주의
(출처:경기도박물관(2002), p.20)



<그림 36> 19C 이연웅 주의
(출처:경기도박물관(2004a),
p.314)



<그림 37> 20C초 유용준 주의
(출처: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2012), p.94)

76) 김영숙(1998), 전계서, p.139.

77) 이경민(2005), 전계서, pp.17-18

78) 김영숙(1998), 전계서, p.139.

<표 6> 시대에 따른 주의의 변화

구분 시대	형태			구성	색상	소재	그림
	깃	소매	무				
초기 (15C ~16C)	칼깃	광수형	삼각형	트임 없이 두 루막힌 형태이 며 넓은 품	소색 아청색	단(緞) 주(紬)	
							
후기 (18C~ 19C중)	겉:칼깃 안:목판깃	광수형	삼각형	트임 없이 두 루막힌 형태로 넓은 품	갈색	주(紬)	
							
말기 (19C중 ~20C)	칼깃	통수형	삼각형	·트임 없이 두 루막힌 형태 ·소매와 품이 좁아지기 시작 함	갈색 소색	초(緞)	
							
	칼깃	착수형	삼각형	·트임 없이 두 루막힌 형태 ·초기, 중기보 다 품이 좁아 짐	소색	초(緞) 주(紬) 단(緞)	
							

2. 무의 형태 및 구조적 특징

우리나라 전통복식은 평면 구성으로 이루어져 착용자의 활동에 제약이 많다. 그 중 조선시대 남자 포는 무를 달아 넓은 품으로 인해 편안한 착용감을 주었고 표의의 용도로 사용되어 안의 옷을 가리기 위한 목적으로 무를 부착하기도 하였다. 무의 사전적 정의는 “윗옷의 양쪽 겨드랑이 아래에 대는 띠 폭⁷⁹⁾”이다. 조선시대 남자 포의 무의 형태에 대한 선행연구로는 이상은과 김정애(2013)⁸⁰⁾는 무를 사각형 무, 사다리꼴형 무, 삼각형 무, 마름모형 무로 나누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무의 조형적인 형태에 따라 마름모형과 사다리꼴형은 사다리꼴형으로 통합하여 삼각형, 사다리꼴형, 직사각형으로 나누어 고찰하고자 한다.

1) 삼각형 무

조선시대의 남자 포에서 단령, 창의, 중치막, 답호, 주의 등에 옆선에 부착된 삼각형 무를 볼 수 있으며 그 유물로는 <그림 38>의 17세기 초기의 이응해(李應獬) 중치막과 <그림 39>의 19세기 홍완군(洪玩君) 단령이 있다. 삼각형 무의 세로는 포의 옆선 길이와 같으며 아랫변은 포의 밑단이 곡선으로 이루어져 살짝 둥글려 있다.

삼각형 무는 다른 무와 달리 옆선이 막혀있는 것이 대부분이며 옆선이 두루 막힌 무는 가운데 일부분에 트임이 있는 것도 있다. 조선시대 남자 포에서 가장 많이 보여지는 삼각형 무는 단순한 형태이며 말기에는 의복의 간소화 경향으로 대부분의 포에서 나타난다.

79) 국립국어연구원(1999), 국립국어 연구원 표준국어대사전, 서울:두산동아, p.2222.

80) 이상은·김정애(2013), 조선시대 도포의 형태에 관한 연구, 한복문화, 16(1), p.22.



<그림 38> 17C초 이응해 중치막
(출처:문화재청(2006), p.384)



<그림 39> 19C 홍완군 겹단령
(출처:문화재청(2006), p.190)

2) 사다리꼴 무

조선 초기 남자 포에는 직사각형의 무가 많이 나타났으나 임진왜란 후에는 복식의 경향이 바뀌면서 무가 직사각형에서 삼각형을 추가한 사다리꼴 형태로 나타났으며 이후에는 하나의 무로 이루어진 사다리꼴 모양으로 정착되었다. 그 유물로는 17세기 초기의 한준민(韓俊敏) 단령(그림 40)과 김위(金緯) 단령(그림 41)의 앞무는 직사각형에 삼각형을 연결한 사다리꼴형이고, 직사각형 무에서 사다리꼴형 무로 이행되는 과도기적 형태로 볼 수 있다⁸¹⁾.

단령, 직령, 답호의 사다리꼴 무는 윗부분이 뾰족한 변형 사다리꼴형에 소매가 넓으며 두리소매로 겨드랑이 쪽에 움푹임이 불편하여 무의 윗부분을 뒤로 젖혀 착용하였다. 조선시대 후기에는 뒷길에 앞무의 윗부분이 매듭단추(그림 42)나 바느질로 고정된 형태로 변하게 된다. 변형 사다리꼴형 무는 삼각형 무에서 위쪽에 꼭지점이 하나 더 생겨 윗변의 바깥쪽이 뾰족한 사다리꼴 형으로 마름모형으로 볼 수 있으나 윗변만 제외하면 사다리꼴 모양과 유사하므로 본 논문에서는 사다리꼴형 무로 분류하였다.

창의나 주의에서 보여지는 사다리꼴형 무는 윗변과 아랫변이 평행한 이등변 사다리꼴 모양으로 이는 대창의나 주의의 겨드랑이에 나타나는 당으로 인한

81)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2013), 영릉 참봉 한준민일가 묘 출토 유물, 서울:민속원, p.31.

것으로 보여지며 도포의 경우에는 윗변이 조금 넓게 나타나 일반적인 이등변 사다리꼴 형의 무가 나타나며 윗변이 짧아 무의 윗부분과 아랫부분의 너비 차이가 크다.



<그림 40> 17C초 한준민 단령
(출처: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2013), p.30)



<그림 41> 17C초 김위 단령
(출처:문화재청(2006), p.331)



(a)



(b)

<그림 42> 의원군 이혁 단령
(출처:경기도박물관(2004a), p.289)

3) 직사각형 무

고려시대 불복장유물 중 해인사 소장 답호(그림 43)는 직사각형의 무가 여러 개의 주름으로 접혀 옆선 안에 들어간 형태로 조선 초기의 남자 포에서 많이 보여 진다. 직사각형 무를 주름을 접어 처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해인사 답호에서 나타난 여러 개의 주름을 접는 방법 외에 주름 하나로 구성된 무(그림 44)도 나타난다. 무의 안쪽과 바깥쪽에 주름을 잡은 형태(그림 45), 무의 윗부분을 삼각형 모양으로 접기도 한다.(그림 46) 이러한 무의 형태는 조선시대 초기와 중기의 단령, 직령, 답호에서 주로 보여 진다.

조선 초기에는 직사각형의 무가 주로 나타나게 되어 여러 가지 주름 방법으로 넓은 직사각형의 무를 활동하기 편하게 구성하였다.



<그림 43> 14C 해인사 답호
(출처:유희경·김문자(2006),
p.154)



<그림 44> 17C 운선언 답호
(출처: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2009b),
p.24)



<그림 45> 16C 이인충 직령
(출처: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2004). p.75)



<그림 46> 16C 정응두 단령
(출처: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2004), p.91)

이상의 내용을 정리해 보면 무는 겨드랑이 아래나 길의 옆선에 부착되는 삼각형, 사다리꼴, 직사각형 모양의 덧댄 천을 말하는데, 그대로 달리기 보다는 여러 방법의 주름을 사용하여 다양한 형태로 나타났으며, 이는 다른 구성요소와 달리 차별화되는 포의 특징적 요소이다. 무의 구조적 특징은 다음과 같다.

포의 옆선에 달리는 삼각형 무는 세로 길이가 긴 삼각형이며 밑단이 곡선인 포가 있어 무의 밑변이 둥글러져 있다. 주의와 같이 옆이 막혀 있어 앞무와 뒷무의 옆선이 연결되어 있는 형태가 주로 나타난다.

사다리꼴 형의 무는 직사각형의 무에서 변형된 것으로 사다리꼴형 무의 발생 초기에는 직사각형 무에 삼각형 무를 덧대었으나 후에 한 쪽의 옷감으로 만든 사다리꼴형의 무로 정착되었다. 이러한 무는 윗변과 밑변이 평행이 아닌 변형 사다리꼴 모양으로 무의 윗부분이 뾰족하게 위를 향하는 모양이 나타난다. 변형 사다리꼴 무는 소매에서 가장 넓은 부분이 진동보다 작은 착수형 소매나 콩각지형 소매에는 적합하지만 소매가 넓은 광수형에는 겨드랑이 부분에 공간이 부족하여 무를 뒷길로 젖혔고 나중에는 매듭단추나 바느질로 고정하는 형태로 변화하였다⁸²⁾. 또 다른 사다리꼴 무는 대창의, 주의에서 나타나는 윗변이 매우 짧은 이등변 사다리꼴 모양이 있다. 이는 포의 겨드랑이에 당이 나타나면 보여지는 형태이다. 도포의 사다리꼴형 무은 당의 존재와 상관없이 나타나며 일반적인 사다리꼴형이다.

직사각형 무의 구조적 특징은 주름이 잡혀 있어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데 옆선 안으로 여러 개의 주름을 잡아 고정하거나 무의 상단을 접는 등 여러 가지 형태로 보여진다. 이는 넓은 폭의 직사각형 무를 사용하여 착용감과 활동성은 좋아졌으나 고정하기 위한 방법이 필요하여 무에 주름을 주는 방식으로 변한 것으로 보여진다.

82) 이주영·권영숙(2004), 직령의 부위별 형태 특성과 상호간의 관련성 연구, 복식, 54(5), p.121.

Ⅲ. 조선시대 남자 포의 종류별 무의 형태 변화

1. 무의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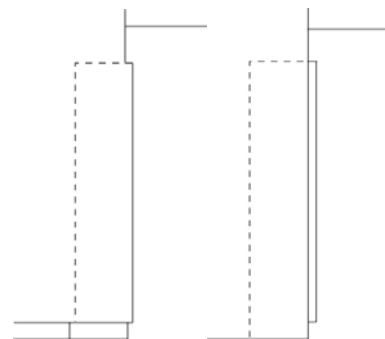
1) 안주름형

안주름형 무(그림 48)는 주름을 여러 개 잡은 후 윗부분을 겹쳐 일직선으로 박음질하여 길 쪽으로 넣은 형태이다. 옆선 안으로 무가 들어가 곁에서 봤을 때 무가 부착되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이러한 안주름형 무는 단령, 직령, 답호에 나타난다.

이러한 무 형태는 12~13세기 금대(金代)에 단령에 처음 나타났으며 원대(元代) 후기에 다시 유행하여 명(明)으로 이어져⁸³⁾ 우리나라로 전해진 것이다. <그림 47>의 고려시대 해인사 답호에서 안주름형 무를 볼 수 있어 이 유형은 고려시대와 조선 초기에 보이는 무 형태로 다음에 서술할 무보다 비교적 고식(古式)의 유형이다.



<그림 47> 14C 해인사 답호
(출처:유희경·김문자(2006),
p.154)



(앞) (뒤)
<그림 48> 안주름형 도식화

83) 이은주(1998), 전계서, p.7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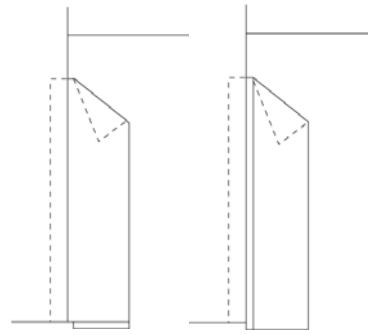
2) 안팎주름사선형

안팎주름사선형 무(그림 50)는 옆선 안으로 주름을 접어 넣고 밖으로 주름을 만든 후 무의 윗부분을 삼각형 모양인 사선으로 접은 형태로 무의 상부를 꿰맨 것 외에 옆선은 트여 있다. 안주름형과 더불어 조선시대 초기의 가장 일반적인 무의 유형으로 조선 전기 묘에서 출토된 단령, 직령, 답호가 대부분 안팎주름사선형이다. <그림 49>은 16세기 초기 변수(邊脩) 답호의 유물로 안팎주름사선형의 무가 나타난다.

명(明)에서는 단령에 안팎주름사선형의 무가 나타나는 것을 고려양(高麗樣)이라 하였고, 이러한 유형이 명(明) 8대 황제 성화제(成化帝, 1465~1487)와 9대 황제 홍치제(弘治帝, 1488~1505) 때 사대부 사이에 유행한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아 원(元)에서 유행한 고려양이 명(明)에도 나타남을 볼 수 있다⁸⁴⁾.



<그림 49> 16C 변수 답호
(출처:국립민속박물관(2000), p.48)



(앞) (뒤)
<그림 50> 안팎주름사선무
도식화

84) 최은수(2007), 전계서, p.7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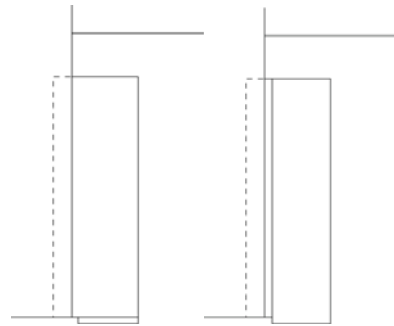
3) 안팎주름형

안팎주름형은 안팎주름사선형의 형태와 비슷하며 무의 옆길 쪽과 바깥 쪽에 주름이 있고 무의 윗부분이 접혀져 있지 않은 안팎주름형(그림 52)이 나타난다. 16세기 초기까지 보여 졌던 안팎주름사선형이 발전된 형태로 16세기 중기 이후에 많이 나타난다.

여러 개의 주름으로 구성된 안주름형은 옆길 쪽에 주름 하나를 남기고 밖에 주름 하나로 구성된 안팎주름형으로 발전된다. 이는 16세기 후반의 심수륜(沈秀崙) 직령(그림 51)에서 안팎주름형 무를 볼 수 있다.



<그림 51> 16C후 심수륜 직령
(출처:경기도박물관(2004b), p.15)



(앞)

(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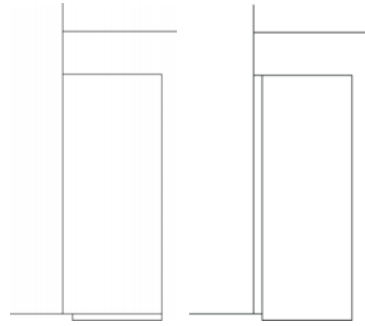
<그림 52> 안팎주름형 도식화

4) 밖주름형

밖주름형(그림 54)은 안팎주름형에서 옆선의 주름이 펴지고 무의 바깥쪽에 만 주름이 잡혀 있는 것이 특징이며, 주름이 여러 개로 구성되기도 한다. 겉으로 보이는 무의 너비는 안팎주름사선형과 안팎주름형보다 넓다. 16세기 후반부터 나타나기 시작하여 조선시대 중기에 뒤젓힘주름형 무가 나타나기 전까지 많이 사용된 주름 양식이다. 그 유물로는 <그림 53>의 윤선언(尹善言) 답호에서 볼 수 있다.



<그림 53> 17C초 윤선언 답호
(출처: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2009b), p.42)



(앞) (뒤)

<그림 54> 밖주름형 도식화

5) 뒤젓힘주름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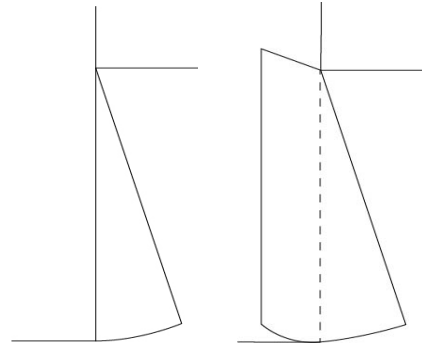
조선시대 중기에 새로이 나타나는 뒤젓힘주름형(그림 56)이 있다. 밖주름형에서 겨드랑이 아래에 주름을 잡아 무의 윗부분이 뒤로 젖혀진 형태이다. 이러한 형태는 무의 상부가 뾰족한 변형사다리꼴에서 많이 나타난다(그림 55). 뒤젓힘주름형 무는 초기에 직사각형이었으나 뒤로 넘겨지게 되면서 옆선 쪽에 공간이 부족해지자 삼각형 무를 추가하여 사다리꼴 모양으로 바뀌게 되었다⁸⁵⁾. 이로 인하여 뒤젓힘주름형의 무는 윗변이 뾰족한 사다리꼴 모양이 일반적인 형태가 되었고, 뒤로 젖혀진 무의 윗부분이 아래로 처지지 않도록 한지 심을 넣기도 하였다. 앞길의 밑단 너비를 넓게 만들어 양 옆에 공간이 부족해지지 않게 하였고, 무를 뒤쪽으로 처리하는 것이 편해지면서 후에 매듭이나 바느질하여 뒷길에 고정하였다.

뒤젓힘주름형에서 앞무가 뒷무보다 크기가 큰 것을 볼 수 있는데 무를 뒤로 젖힐 때 앞무가 뒷무를 덮기 위한 것 같다.

85) 이은주(1998), 전계서, p.85.



<그림 55> 17C초 신경유 단령
(출처: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2009a), p.30)



(앞) (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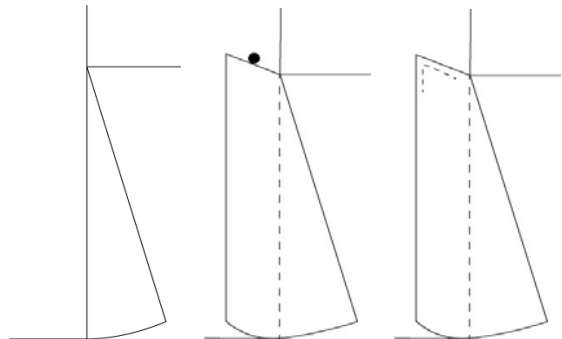
<그림 56> 뒤젓힘주름무 도식화

6) 뒷길고정형

뒷길고정형(그림 58)은 뒤젓힘주름형 무가 발전되어 무의 윗부분을 뒷길에 고정된 형태이다. 이는 무를 뒤로 젖혀졌을 때 앞무와 뒷무의 윗부분이 분리되어 뒷길에 고정시키기 위해 생겨난 양식이다. 뒷길고정형 도식화에서 (뒤)-1 은 앞무의 윗부분에 매듭단추를 부착하였고 (뒤)-2 는 상침하여 고정된 형태로 (뒤)-2가 좀 더 후대의 것이다. <그림 57>에서는 (뒤)-2의 유형이 나타난다.



<그림 57> 20C초 윤용구 단령 뒤
(출처: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2012), p.68)



(앞) (뒤)-1 (뒤)-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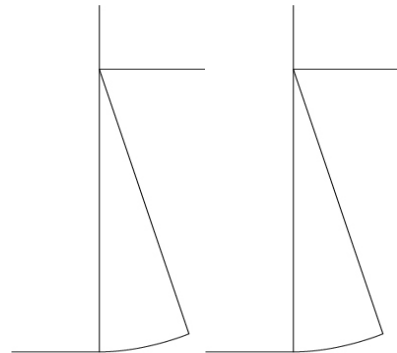
<그림 58> 뒷길고정형 도식화

7) 두루마기형

주름이 없는 삼각형과 사다리꼴 무 형태는 두루마기(그림 59)에 보여지는 무 형식으로 두루마기형(그림 60)이라고 하였다. 앞서 서술한 다른 유형의 무와 다르게 주름이 없으며 단순한 형태로 옆이 막혀 있는 것이 대부분이나 가운데에 트임이 있기도 하였다⁸⁶⁾.

















<그림 59> 20C 주의
(출처: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2004), p.138)



(앞) (뒤)
<그림 60> 두루마기형 도식화

86) 최은수(2007), 전계서, p.146.

<표 7> 무의 유형 및 조형적 형태

무의 유형	무의 형태			특징
	구분	도식		
		앞	뒤	
안주름형	직사각형			겨드랑이 아래 여러 개의 주름을 잡아 옆선 안으로 무를 넣은 것
안뿔주름사선형	직사각형			무의 옆선 쪽과 바깥쪽에 주름을 잡은 뒤 무의 윗부분을 삼각형 모양으로 사선으로 접은 형태
안뿔주름형	직사각형			무의 옆선 쪽과 바깥쪽에 주름을 잡은 형태
밖주름형	직사각형			무의 바깥쪽만 주름을 잡은 형태
뒤젓힘주름형	직사각형 사다리꼴			앞무와 뒷무가 뒷길로 젓혀진 형태로 무의 윗부분이 아래로 처지지 않도록 한지심을 넣기도 함
뒷길고정형	사다리꼴			앞무가 뒷무에 뒤로 젓혀져 뒷길에 고정된 형태로 무의 윗부분을 매듭 단추나 상침으로 고정
두루마기형	삼각형 사다리꼴			무에 주름이 없이 펼쳐진 형태

2. 포에 따른 무의 형태 변화

1) 단령

(1) 조선시대 초기

신언식(申彦滉, 1519~1582) 단령(그림 61)은 홑으로 구성되어 무명으로 만든 시복(時服)이다. 이 단령에서는 직사각형의 안주름형의 무가 나타나며 주름은 두 번 접어 옆선 안으로 넣었다. 단령의 특징인 둥근 깃에 깃의 파임이 얇고 소매는 통수형이다. 연산군(燕山君) 11년(1505)부터 시복을 면(綿)으로 만들게 하여⁸⁷⁾, 신언식 단령은 그 제도를 따라 간소하게 면으로 제작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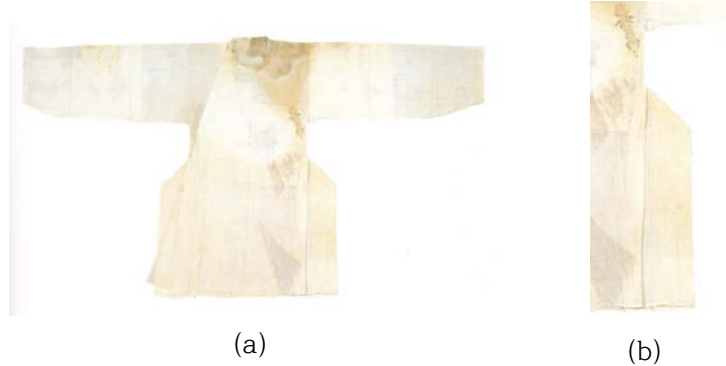


<그림 61> 16C후 신언식 단령
(출처: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2004), p.65)

정온(鄭蘊, 1481~1538) 묘에서 출토되어 무명으로 만든 홑으로 구성된 단령(그림 62)의 무는 직사각형이며 안팎주름사선형이다. 무가 달린 위치는 후대(後代)의 것과 비교하면 낮은 위치에 달려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조선 초기의 무의 특징이다. 소매는 통수에 진동보다 수구가 좁은 형태이다. 정온 단령은 <그림 61>의 단령과 더불어 연산군(燕山君) 11년(1505)부터 대소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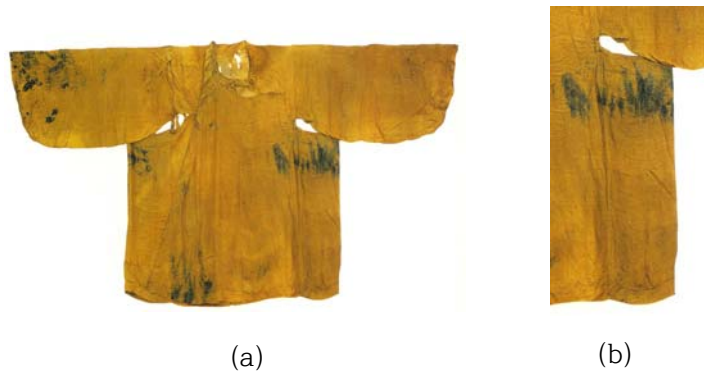
87)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2004), 명선-중, 서울: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p.65.

원(大小官員)은 면포(綿布) 단령을 입도록 하였음을 입증하는 의복이다⁸⁸⁾.



<그림 62> 16C초 정은 단령
(출처: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2004), p.63)

심수륜(沈秀崙, 1534~1589) 단령(그림 63)은 아청색(鴉青色)의 숙초(熟絹)로 만들어 홀으로 구성되었고 소매는 절구통형이다⁸⁹⁾. 직사각형 형태의 무가 길쪽과 바깥쪽에 주름이 잡혀 있는 안팎주름형이며, 안팎주름사선형보다 무의 부착 위치가 겨드랑이점과 가까워짐을 볼 수 있다.



<그림 63> 16C후 심수륜 단령
(출처:경기도박물관(2004b), p.12)

88)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2004), 전개서, p.63.

89) 경기도박물관(2004b), 심수륜 묘 출토복식, 용인:경기도박물관, p.114.

송희종(宋喜從, 16c중후반) 묘에서 출토된 단령(그림 64)은 무명으로 만들어진 홑단령으로, 소매 배래가 진동점 아래로 내려와 너비가 일정한 통수형이다. 옆선에 달린 무는 직사각형 형태에 무의 바깥쪽에 주름이 한 번 접혀진 밝주름형이다. 이 단령은 무의 윗부분과 겨드랑이 아래에 끈을 달아 묶음으로써 무를 길에 고정시켰다⁹⁰. 이는 무의 부착 위치가 겨드랑이 점보다 높아졌고 소매와 무의 윗부분이 겹쳐 겨드랑이와 무를 고정하여 착용에 불편함이 없게 한 것으로 추측된다.



(a)

(b)

<그림 64> 16C후 송희종 단령
(출처:대전선사박물관(2010), p.26)

(2) 조선시대 중기

윤선언(尹善言, 1580~1628) 단령(그림 65)은 홑으로 구성되었다. 무는 직사각형 형태에 밝주름형으로 무를 두 번 접었고, 무의 윗부분을 바느질하여 무의 벌어짐을 방지하였으며, 겨드랑이점 아래 무의 윗부분에 매듭단추를 달아 무를 길과 고정시켰다⁹¹.

90) 대전선사박물관(2010), 옷섭사이로 비치는 조선, 대전:메세나출판사, p.27.

91)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2009b), 해남윤씨 풀정공파 광주출토 유물, 용인:단국대학교출판부, p.36.



(a) (b)
 <그림 65> 17C초 윤선인 단령
 (출처: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2009b), pp.36-37)

조경(趙倣, 1541~1609) 묘에서 출토된 단령(그림 66)은 주(紬)로 만들었고 홀으로 구성되어 있다. 둥근 깃의 파임은 임진왜란 전보다 깊어졌고, 소매는 수구쪽으로 가면서 넓어지는 형태이다. 조경 단령은 사다리꼴 형의 무 윗부분이 뾰족하게 위를 향하고 있으며 앞무보다 뒷무가 큰 밖주름형이다. 윗무가 뾰족한 사다리꼴 모양은 뒤젓힘주름형에서 보여지는데 밖주름형에서 뒤젓힘주름형으로 변하는 과도기적 무의 모양이다. 특이한 점은 앞무의 윗부분을 삼각형으로 잘라내고 그 옷감을 소매에서 부족한 부분에 이어준 것으로, 이는 옷감 한 폭을 그대로 이용하기 위함으로 짐작된다⁹²⁾. 임진왜란 전후로 소매나 무의 형태로 보아 중기에서 후기로 변해가는 단령의 형태를 보여주는 중요한 유물이다.

92)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2006), 전계서, p.154.



<그림 66> 17C초 조경 단령
 (출처:서울역사박물관(2003), p.18)

신경유(申景裕, 1581~1633) 단령(그림 67)은 무늬가 없는 세주(細紬)로 만들어 단령 안에 직령을 넣고 무 윗부분을 겹친 후 징귀 겹단령으로 착용하였다. 무는 사다리꼴형의 뒤젓힘주름형으로, 앞무는 무의 윗부분이 뽕족하며 뒷무는 윗부분이 사선으로 아래로 내려간 사다리꼴 모양이다⁹³⁾.



<그림 67> 17C초 신경유 단령
 (출처: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2009a), p.30)

93)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2006), 전계서, p.30.

(3) 조선시대 후기

조선시대 후기는 중기와 같은 뒤젓힘주름형의 무가 나타난다. 19세기 후반의 이익정(李益炡, 1699~1782) 단령(그림 68)은 안감에 직령을 넣은 후 징귀 한 벌처럼 만든 겹단령이다. 소재는 운보문사(雲寶紋緞)로 직령과 동일하며 무늬의 크기만 다르게 하였다⁹⁴. 광수형에 두리소매이며 무는 뒤젓힘주름형으로 윗부분이 뾰족한 사다리꼴형이고 무가 뒷길에 고정되기 전으로 무의 윗부분에 한지를 심으로 넣어 처지지 않고 뽕뽕해 보이도록 하였다.



<그림 68> 18C후 이익정 단령
(출처: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2004), p.69)

18세기 초기의 의원군(義原君, 1661~1722) 단령(그림 69)은 운보문단(雲寶紋緞)으로 만들었으며 직령을 안감으로 사용되었고 시침질하여 겹으로 구성되었다. 초기와 중기에 비해 깃의 파임이 깊어졌고 소매는 두리소매에 광수형이다. 가슴에 금사(金絲)로 만든 학 흉배(胸背)가 달려있는 것으로 보아 단령이 관복으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무는 사다리꼴형의 뒷길고정형으로 직령과 단령의 무를 모아 바느질 하여 무를 뒤로 젖힌 후 뒷길에 매듭단추로 고정하였다⁹⁵.

94)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2004), 전개서, p.69.

95) 경기도박물관(2002), 조선의 옷매무새, 서울:민속원, p.12.



<그림 69> 18C초 의원군 단령
(출처:경기도박물관(2002), p.12)

홍희준(洪羲俊, 1761~1841) 단령(그림 70)은 운보문단(雲寶紋緞)으로 만들었고 직령을 안감으로 한 겹단령이다. 무는 사다리꼴형에 뒷길고정형으로 무의 윗부분을 뒷길에 홈질로 고정시키는 방법이 처음으로 등장⁹⁶⁾하여 이러한 방법은 현재도 사용하는 무의 고정 양식이다.



<그림 70> 19C중 홍희준 단령
(출처:조희영(2008), p.63)

96) 최은수(2007), 전계서, p.125.

(4) 조선시대 말기

사다리꼴 형태에 뒷길고정형 무가 조선시대 말기에도 나타나며, 그 유물로는 흥선대원군(興宣大院君, 1820~1898) 단령(그림 71)이 있다. 이 단령은 겹으로 구성되어 겹감은 자적색 본사(本絲)이고 안감은 홍색 본사로 만들어졌다. 단령 안감으로 직령을 넣어서 징귀진 형태가 아니며 단령 안깃에 직령의 깃을 부착하여 직령을 받침옷으로 착용한 것처럼 보인다. 소매는 광수형에 두리소매로 가슴과 등에는 기린(麒麟)홍배가 부착되어 있고, 양쪽 겨드랑이 부분에 각대(角帶)를 끼울 수 있는 끈이 달려 있다. 사다리꼴형의 무는 뒤로 젖혀 무의 윗부분을 뒷길에 상침으로 고정되었다⁹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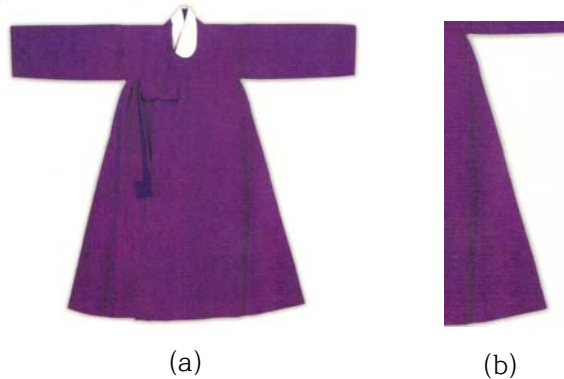
<그림 71> 19C후 흥선대원군 자적단령
(출처:문화재청(2006). p.101)

조선시대 말기는 무가 주름이 없고 펼쳐진 삼각형의 두루마기형이 나타났다. 김병기(金秉冀, 1818~1875) 단령(그림 72)은 겹감은 자주색 명주(明紬), 안감은 남색 명주를 사용하여 겹으로 구성되었다⁹⁸⁾. 후기까지 겹으로 구성된 단령은 안감으로 직령으로 사용한 것에 비해 이 단령은 안깃에 직령의

97) 문화재청(2006), 전계서, p.102.

98) 상계서, p.134.

깃을 부착하였다. 두 겹의 옷을 겹쳐 입은 것이 아니라 안깃에 직령의 깃을 부착하여 착용하기 더욱 간편해졌다. 소매는 좁은 소매이며 단령의 옆선 가운데는 손이 들어가기 위한 트임이 있다.



<그림 72> 19C후 김병기 단령
(출처:문화재청(2006), p.134)

이와 같이 조선시대 초기에서 말기까지의 단령의 무의 형태 변화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조선시대 초기와 중기는 직사각형과 사다리꼴 형태이며 후기에는 윗부분이 뾰족한 변형 사다리꼴형으로 정착되었다가 말기에는 후기부터 나타난 변형사다리꼴형과 더불어 삼각형이 새로 나타났다. 삼각형의 무는 조선시대 말기의 의복 간소화 현상으로 두리소매에 넓었던 소매가 좁아지면서 무도 간소화되어 삼각형으로 주의와 비슷한 모양이 되었다. 이와 같이 단령은 삼각형, 사다리꼴, 직사각형의 형태를 기본으로 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주름 잡힌 유형이 나타난다.

단령의 무의 유형은 발생 순서에 따라 안주름형, 안뽕주름사선형, 안뽕주름형, 뽕주름형, 뒤젓힘주름형, 뒷길고정형, 두루마기형의 일곱 가지로 구분하였고 발생 초기에서 후기로 갈수록 주름의 개수가 줄어들고 형태가 단순화되었다. 조선시대 초기에는 안주름형, 안뽕주름사선형, 안뽕주름형, 뽕주름형

이 나타난다. 그 중 안주름형은 고려시대부터 보인 형태로 안팎주름사선형, 안팎주름형과 더불어 조선시대 초기의 대표적인 유형이다. 밖주름형은 조선시대 초기에 발생했으나 중기에 많이 나타나는 유형으로, 중기에는 임진왜란 후 복식문화에 변화가 일어나 윗무가 뽕족한 사다리꼴형의 뒤젓힘주름형인 새로운 유형이 나타났다. 무가 뒤로 젖혀진 것은 소매가 광수형이 되면서 앞길 옆선 쪽의 활동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후기에는 뒤젓힘주름형과 여기에서 발전된 형태인 뒷길고정형이 보여 진다. 뒷길고정형은 무의 윗부분을 뒷길에 매듭단추나 상침하여 무를 고정시켰다. 뒷길고정형에서 뒷무보다 앞무의 크기가 큰데 이는 앞무가 뒤로 젖혀 뒷무를 덮으면서 고정되기 위함인 것 같다. 말기에는 주의와 비슷한 형태인 양옆이 붙어 있는 단령이 나타났으며 주름이 없어진 삼각형의 두루마기형이 보여 진다.

무가 부착된 위치는 시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초기의 안주름형, 안팎주름사선형, 안팎주름형의 경우 겨드랑이점에서 조금 떨어진 지점에 부착이 되었다. 무의 길 쪽의 주름이 없어지고 밖주름형 무에서는 무의 위치가 좀더 위로 부착되다가 겨드랑이점보다 더 위로 올라가는 무도 있었다. 뒤젓힘주름형에서는 겨드랑이점에 부착되었다. 조선 말기에 새로 나타난 뒷길고정형의 무도 겨드랑이 바로 아래에 부착되었다.

<표 8> 시대별 단령 무의 형태 변화

시대	유형	형태		특징	구조	출토 유물
		앞	뒤			
초기 (15C ~16C)	안주름형			·착수형 ·무가 옆선 안에 들어가 앞에서 무가 없는 것처럼 보임	직사각형	
	안뺨주름 사선형			·착수형	직사각형	
	안뺨주름형			·착수형	직사각형	
중기 (17C)	밖주름형			·광수형 ·무의 바깥에만 주름이 있어 무의 크기가 큼	사다리꼴 직사각형	
	뒤젓힘주름형			·광수형 두리소매 ·뒤로 젖혀지는 형태로 뽕족한 무의 윗부분이 처지지 않게 한지심을 넣기도 함	사다리꼴	
후기 (18C~ 19C중)	뒷길 고정형			·광수형 두리소매 ·단령의 안깃에 직령의 깃 부착 ·뒷길에 매듭단추나 상침을 하여 고정	사다리꼴	
말기 (19C중 ~20C)	두루마기형			·광수형 두리소매 ·단령의 안깃에 직령의 깃 부착 ·옆이 막힌 무로 옆선 가운데 트임이 있는 단령도 존재	삼각형	

2) 직령

후기부터 출토 수량이 줄어들어 말기는 유물을 보기 힘들다. 이는 직령이 단령의 받침옷으로 착용되어 후기에 단령의 안깃에 직령의 깃을 부착함으로써 착용 사례가 줄어 든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1) 조선시대 초기

무가 사다리꼴형에 안팎주름형은 조경(趙敬, 1541~1609) 직령(그림 73)에서 볼 수 있으며, 곁감은 토주(吐紬), 안감은 명주(明紬)로 겹으로 구성되어 있다. 깃은 이중깃 형태로 곁깃은 칼깃, 안깃은 목판깃이다. 단령이나 직령에 나타나는 일반적인 형태의 안주름형의 무는 여러 개의 주름이 접혀져 옆선 안으로 들어가 곁에는 보이지 않는 형태이나 조경 단령은 무가 옆선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겨드랑이 아래만 주름이 잡혀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앞무는 2쪽을 연결하여 겨드랑이 아래에 주름 4개를 잡아 마지막 주름은 사다리꼴 모양의 뒷무와 함께 바느질되어 뒷무에 고정되어 있다⁹⁹⁾. 조경 직령은 17세기 초기의 의복이나 물년이 1609년으로 16세기에 가깝고 초기의 의복 형태를 가지고 있어 조선시대 초기로 분류하였다.



<그림 73> 17C초 조경 직령
(출처:서울역사박물관(2003), p.30)

99) 서울역사박물관(2003), 조경묘 출토 유의, 서울:서울역사박물관, p.67.

무가 직사각형에 안팎주름형은 심수륜(沈秀崙, 1534~1589) 직령(그림 74)에서 볼 수 있다. 이 단령은 면포(綿布)로 만든 홑직령이다. 양옆에 부착된 직사각형 무가 길 쪽 옆선에 주름이 하나 접히고 무의 바깥쪽 주름이 두 번 접힌 이중 접힘 형태로 주름이 총 3개로 구성되어 있다¹⁰⁰⁾.



<그림 74> 16C후 심수륜 직령
(출처:경기도박물관(2004b), p.14)

무가 직사각형에 안팎주름사선형은 정온(鄭溫, 1481~1538)묘에서 출토된 직령(그림 75)에서 볼 수 있다. 이 직령은 단령의 받침옷으로 착용되었고 길은 갈색 명주(明紬)로 만들어 안에 솜을 얇게 넣었다. 깃은 칼깃이고 소매너비는 진동선과 같으며 좁다. 무는 옆길 쪽과 바깥 쪽에 주름이 있고 위쪽은 아래쪽을 향한 사선으로 접혀진 상태로, 무의 윗부분은 막혀있으나 밑단 쪽 일부만 트여있다¹⁰¹⁾. 왼쪽 무는 펼쳐져 있어 접히기 전 상태가 직사각형 모양임을 확인 할 수 있다. 정온 직령은 조선시대 전기의 전형적인 직령 형태를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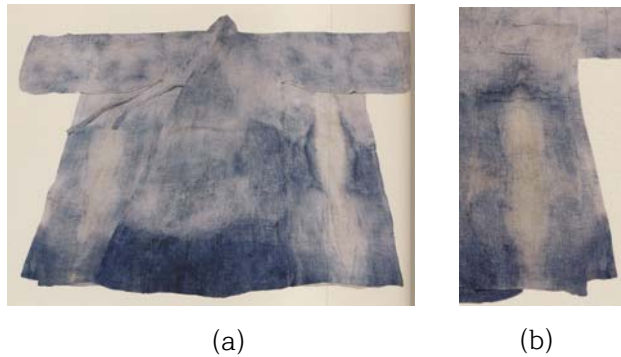
100) 경기도박물관(2004b), 전계서, p.121.

101)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2004), 전계서, p.74.



<그림 75> 16C초 정은 직령
 (출처: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2004), p.74)

직사각형에 박주름형의 무를 가진 직령은 송희종(宋喜從, 16C중후반) 직령(그림 76)이 있다. 깃은 칼깃에 소매는 콩깍지형이다. 무는 직사각형에 박주름형으로 무의 바깥쪽에 하나의 주름이 있다. 겨드랑이 안쪽과 무 상부에 끈을 달아 끈을 묶음으로써 무가 처지지 않게 고정하였다¹⁰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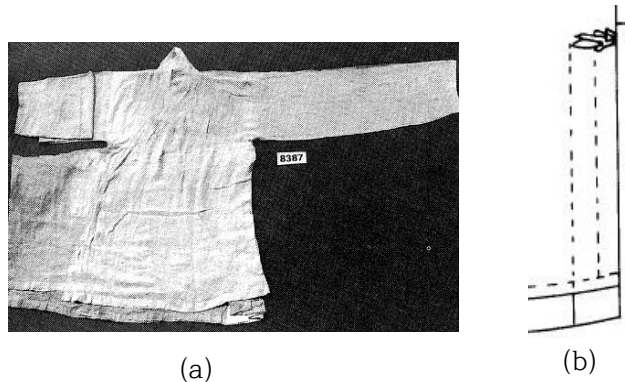


<그림 76> 16C후 송희종 직령
 (출처:대전선사박물관(2010), p.36)

102) 대전선사박물관(2010), 전계서, p.36.

(2) 조선시대 중기

제주고씨(濟州高氏, 1560-1640)의 모시로 만든 소색(素色) 홑직령(그림 77)에서 직사각형의 안주름형 무가 나타난다. 깃은 칼깃이고 소매는 착수형이다. 왼쪽 길에 부착된 펼쳐진 무를 통해 형태가 직사각형임을 확인할 수 있고 무의 유형은 직사각형 모양의 무에서 두 개의 주름이 접혀 옆선 안으로 들어간 안주름형이다. 조선 초기의 단령과 무의 형태가 유사하다.



<그림 77> 17C중 제주고씨 직령
(출처:심연옥·민길자(1997), p.9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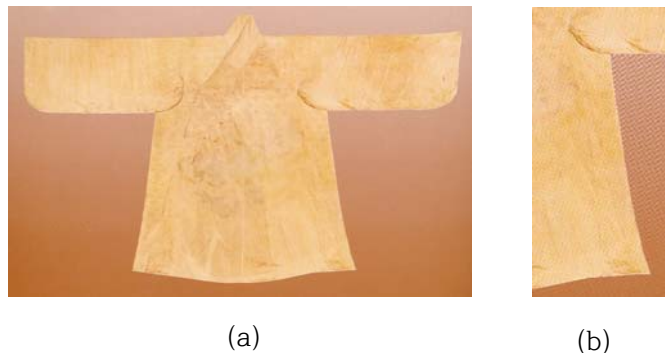
중기에 사다리꼴에 뒤젓힘주름형이 나타나는데 <그림 78>의 신경유(申景裕, 1581~1633) 직령에서 볼 수 있다. 이 직령은 주(紬)를 사용하여 홑으로 구성되어 단령의 안감이 아니라 독립된 포로 착용되었다. 깃만 제외하면 같은 시대의 단령과 동일한 형태이다. 무는 사다리꼴형이며 앞무가 뒷무보다 크고, 무의 폭이 넓으므로 앞무와 뒷무의 벌어짐을 방지하기 위해 무의 윗부분을 징귀서 고정시켰다¹⁰³⁾.

103) 단국대학교출판부(2009a), 전계서, p.199.



<그림 78> 17C초 신경유 직령
 (출처: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2009a), p.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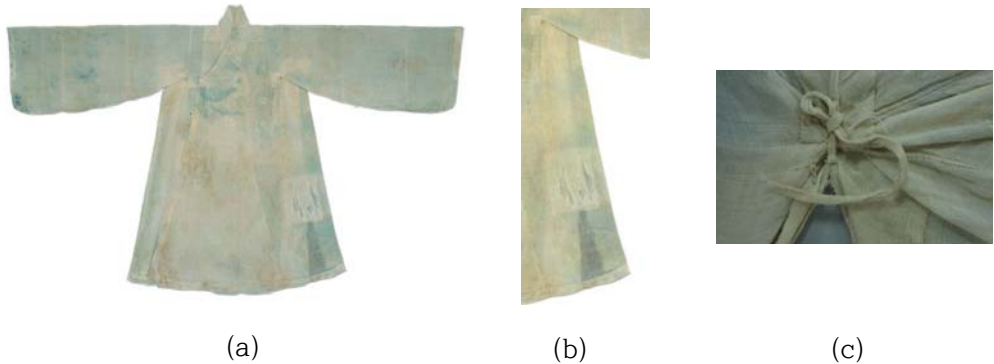
임진왜란 후로 추정되는 김위(金緯, 17세기 초)의 묘에서 출토된 직령(그림 79)은 운문단(雲紋緞)으로 만들어진 홑직령이며 단령의 받침옷으로 사용되었다. 앞무는 직사각형과 앞길 사이에 삼각형 무가 추가된 사다리꼴 모양에 뒤젓힘주름형이다. 이전의 직령은 앞무에 직사각형 형태로만 이루어진 것에 비해 <그림 79>의 직령은 직사각형무에 삼각무가 삽입되었다. 앞무에 삼각무가 추가된 것은 무가 뒤로 젖혀지면서 옆선에 주름으로 인해 공간의 차단이 생기게 되어 활동하기에 불편하자 폭을 넓히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뒷무의 형태는 직사각형으로 앞무와 구조가 다르다¹⁰⁴.



<그림 79> 17C초 김위 직령
 (출처:장인우(1995), p.74)

104) 이은주(1998), 전개서, p.104.

이응해(李應獬, 1547~1627) 직령(그림 80)은 모시로 만든 홑직령으로, 칼깃에 광수로 변해가는 과도기의 소매이다. 앞무는 뒤젓힘주름형에 위가 뾰족한 사다리꼴형으로 겨드랑이 아래 10Cm 정도는 고정되어 있지 않고, 겨드랑이에 고리를 부착하여 무의 윗부분에 끈(그림 80-(C))을 연결해 매듭지어 고정하였다¹⁰⁵⁾. 무의 윗부분에 한지로 만든 심을 넣기 전 단계로 뾰족한 무의 처짐을 방지하기 위해 끈을 달아 고정한 것으로 추측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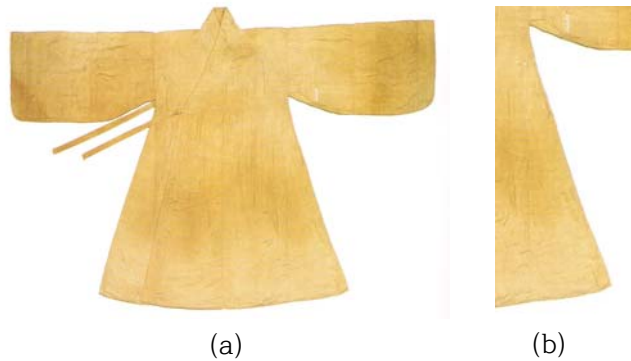


<그림 80> 17C초 이응해 직령
(출처:문화재청(2006), p.397)

무가 삼각형이고 두루마기 형태인 동래정씨(東萊鄭氏, 1574~1669) 직령(그림 81)은 주(紬)에 솜을 넣어 만들었으며, 칼깃에 절구통모양의 소매이다. 전기에 비해 품이 좁아져 걸쭉은 옷의 중심으로 이동하고 옷고름은 길고 넓어지기 시작하는 것¹⁰⁶⁾으로 보아 후기로 변해가는 과도기적인 직령 모양을 확인할 수 있다.

105) 문화재청(2006), 전계서, p.397.

106)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2004), 전계서, p.76.



<그림 81> 17C중 동래정씨 직령
(출처: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2004), p.76)

(3) 조선시대 후기

조선시대 후기는 중기보다 직령의 착용이 줄어들어 출토유물을 찾아보기 힘들다. 19세기 중기에 홍희준(洪羲俊, 1761~1841)의 주(紬)로 된 홑직령(그림 82)이 출토되었다. 이 직령은 단령의 안감으로 사용되었으며 칼깃에 폭이 넓은 두리소매이다. 무는 삼각형의 두루마기형으로 옆선에 트임이 없이 막혀 있다¹⁰⁷⁾.



<그림 82> 19C중 홍희준 직령
(출처: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2004), p.77)

107)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2004), 전계서, p.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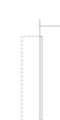










초기에는 직사각형의 무가 보여졌고 중기에는 직사각형과 더불어 단령과 같은 윗부분이 뾰족한 사다리꼴형이었다. 후기에는 삼각형의 무가 나타났다.

직령의 무의 형태 변화는 직사각형, 사다리꼴, 삼각형으로 다양한 주름 방식이 더해져 여섯 가지의 무의 유형을 확인 할 수 있다. 초기에는 안팎주름 사선형, 안팎주름형, 밖주름형의 무가 있었고 중기에는 안주름형, 밖주름형과 사다리꼴형에 무의 윗부분이 뾰족한 뒷젓힘주름형이 새로이 나타났다. 후기에는 두루마기와 비슷한 형태로 삼각형 무나 직사각형 무에 두루마기형이 나타났다.

직령의 옆선에 부착된 무의 위치는 조선 초기에는 겨드랑이 점에서 무가 달리는 부분까지의 길이가 넓었으나 중기로 오면서 겨드랑이 점과 부착위치가 짧아지기 시작하면서 후기에는 겨드랑이 아래에 달리게 되었다¹⁰⁸⁾. 무의 길이가 중기나 후기로 갈수록 초기보다 길어짐을 확인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조선시대의 직령의 무는 단령과 비슷하고 다양한 유형이 존재함을 알 수 있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표 9>와 같다.

108) 이은주(1998), 전계서, p.105.

<표 9> 시대별 직령 무의 형태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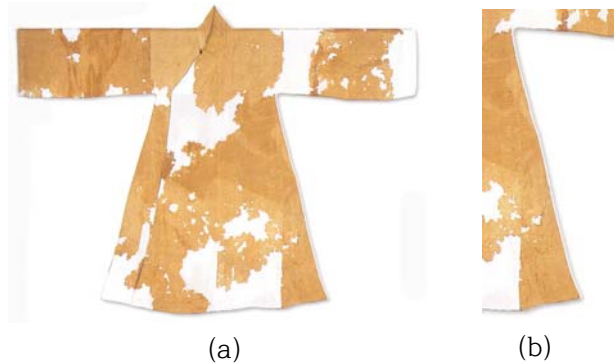
시대	유형	형태		특징	구조	출토 유물
		앞	뒤			
초기 (15C ~16C)	안팎주름 형			·광수형	직사각형	
	안팎주름 사선형			·착수형	직사각형	
	안주름형			·착수형 ·무가 옆선 안으로 들어가 앞에서 무가 없는 것처럼 보임	사다리꼴 직사각형	
중기 (17C)	밖주름형			·광수형 ·무의 밖에만 주름이 있어 무의 크기가 큼	사다리꼴 직사각형	
	뒤젓힘 주름형			·광수형 두리소매 ·단령의 안감으로 사용되어 단령의 무와 함께 뒤로 젓혀짐	사다리꼴	
후기 (18C~ 19C중)	두루마기 형			·광수형 두리소매 ·옆이 막혀 있음	삼각형	
말기 (19C중 ~20C)	-	-	-	-	-	-

3) 창의

창의는 소매너비, 무의 유무, 트임의 위치에 따라 대창의 · 소창의 · 중치막 · 학창의로 나뉘는데 본 연구에서는 말기까지 무의 형태가 나타나는 대창의를 중심으로 하여 무의 형태 변화를 서술하였다.

(1) 조선시대 초기

창의는 임진왜란 이후에 널리 착용된 포제로 15세기 유물에서는 찾아보기 힘들며 16세기에 조경(趙敬, 1541~1609) 묘에 삼각형에 두루마기형의 무가 나타난 창의(그림 83)가 출토되었다. 이 창의는 명주를 겹으로 만들어 누볐으며 겹짓은 칼깃이고 안깃은 목판깃이다¹⁰⁹. 소매는 진동 너비와 같은 통수형으로 대창의로 분화되기 전의 창의로 볼 수 있다. 조경 직령은 17세기 초기의 의복이나 물년이 1609년으로 16세기에 가깝고 초기의 의복 형태를 가지고 있어 조선시대 초기로 분류하였다.



<그림 83> 17C초 조경 창의
(출처:서울역사박물관(2003), p.31)

109) 서울역사박물관(2003), 전개서, p.68.

(2) 조선시대 중기

조선시대 중기도 초기와 같은 삼각형에 두루마기형인 무가 신경유(申景裕, 1581~1633) 창의(그림 84)와 17세기 후반의 창의(그림 85)에서 보인다. 17세기 초기의 신경유 창의는 대창의로 분류되기 전의 창의이고 17세기 후반의 최원립 창의는 소매너비로 보아 대창의로 분류된 후의 창의이다.

신경유 창의는 운문사(雲紋絲)로 만들어 홀으로 구성되었으며, 깃은 칼깃에 소매는 초기에 비해 넓어졌고 대창의로 변해가는 과도기의 창의이다. 삼각형의 앞무와 뒷무는 트임 없이 연결되어 있고 뒷중심에 트임이 있다¹¹⁰⁾.



<그림 84> 17C초 신경유 창의

(출처: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2009a, p.83))

17세기 후반의 최원립(崔元立, 1618~1690) 창의는 17세기 후반의 창의로 신경유 창의에 비해 넓은 소매 형태로 보아 대창의로 정착된 포이다. 삼각형의 두루마기형의 무가 보이며, 옆트임이 없이 막혀 있고 뒷 중심에 트임이 있다¹¹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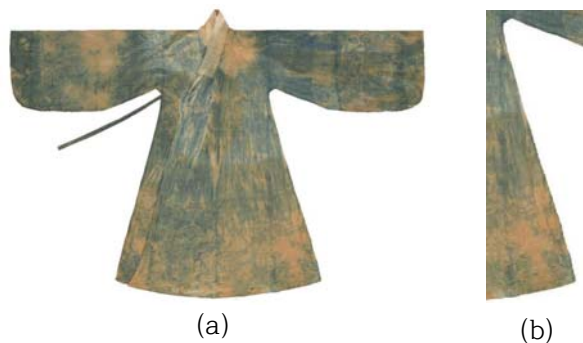
110)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2009a), 전게서, p.83.

111) 이화여자대학교 박물관(2006), 17세기 조선 무관의 차림새, 서울:이화여자대학교 박물관, p.113.



<그림 85> 17C후 최원립 창의
(출처:이화여자대학교 박물관(2006), p.14)

김확(金獲, 1572~1633) 창의를(그림 86)에서 겨드랑이 당과 옆선의 두루마기 형의 사다리꼴형 무를 확인할 수 있다. 무의 윗부분이 아랫단과 평행인 이등변 사다리꼴형으로 단령과 직령의 뒤젓힘주름형에서 나타나는 변형사다리꼴형과 다르다. 김확 창의를는 17세기 초기의 창의로 소매 모양으로 보아 아직 대창의로 분류되기 전이다. 겹으로 구성되어 겉감은 아청색 토주(吐紬)로 안감은 소색 주(紬)로 만들었다¹¹²⁾. 옆선에 트임은 없으며 뒷중심에 트임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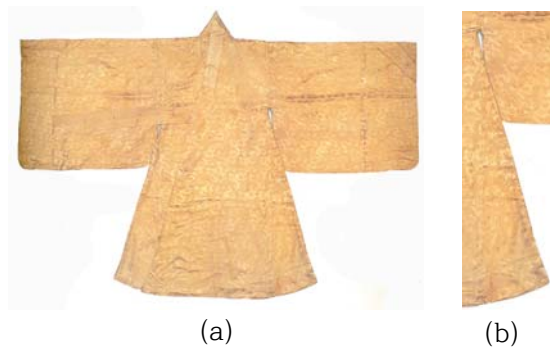


<그림 86> 17C초 김확 창의
(출처:경기도박물관(2007), p.305)

112) 경기도박물관(2007), 김확 합장묘 출토복식, 용인:경기도박물관, p.181.

(3) 조선시대 후기

이변(李晔, 1636-1731) 대창의(그림 87)는 겉은 운보문단(雲寶紋緞)이고 안은 명주(明紬)로 만든 겹옷이다¹¹³⁾. 깃은 칼깃에 소매너비는 넓고 두리소매를 이루며 진동과 수구의 너비가 같다. 뒷중심이 트여 있으며 옆선에는 삼각형의 두루마기형의 무가 달려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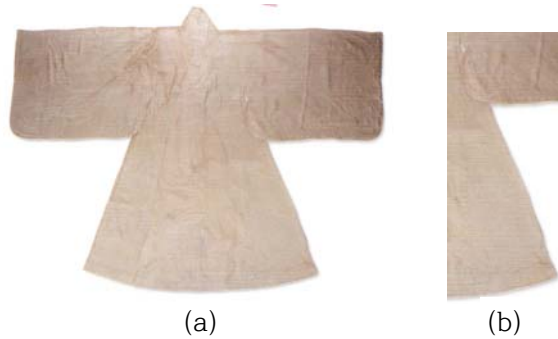
<그림 87> 18C초 이변 창의
(출처: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2006), p.113)

(4) 조선시대 말기

조선시대 말기에는 의복의 간소화 경향으로 인해 대창의의 착용이 줄어들어 유물의 수가 많지 않다. 이연응(李沆應, 1661~1722) 대창의(그림 88)는 중기와 후기에 나타난 삼각형에 두루마기형의 무가 나타난다. 이 대창의는 초(綃)로 만들어져 홑으로 구성되었다. 다른 대창의와 같이 옆선은 트임이 없이 막혀 있으며 뒷중심에 트임이 있다¹¹⁴⁾.

113)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2006), 전게서, p.113.

114) 경기도박물관(2002), 전게서, p.92.



<그림 88> 18C초 이연응 창의
 (출처:경기도박물관(2002), p.92)

창의는 조선 중기부터 널리 착용되었으나 초기에 유물이 있는 것으로 보아 창의가 초기에도 존재했음을 알 수 있다. 초기에서 말기까지 무의 형태는 삼각형 무가 주를 이루었고 중기부터는 사다리꼴형 무도 나타난다. 창의의 사다리꼴형 무는 단령과 직령에 나타나는 변형사다리꼴형과 다르게 윗변이 매우 짧은 이등변 사다리꼴형이고 겨드랑이 아래 덧붙여져 있는 당에 연결되었다.

창의의 무 유형은 두루마기형이 주로 보여지며 앞서 서술한 단령이나 직령과 달리 무의 형태나 변화 등이 비교적 단순함을 알 수 있다.

무가 달리는 위치는 초기부터 변함없이 겨드랑이 아래쪽에 달렸다. 창의의 발생 초기에는 옆선 아래쪽에 일부만 트여 있었으나 대창의로 분화된 후는 옆선에 트임이 사라졌으며 뒷중심에만 트임이 있다.

<표 10> 시대별 창의 무의 형태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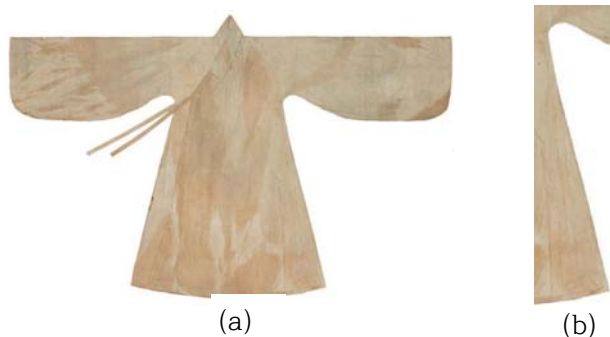
시대	유형	형태		특징	구조	출토 유물
		앞	뒤			
초기 (15C ~16C)	두루마기 형			·삼각형 무의 폭이 좁고 옆선의 밑단에 트임이 있 는 것도 있음 ·뒷중심 트임	삼각형	
중기 (17C)	두루마기 형			·광수로 변해가는 과도기 의 소매 ·겨드랑이에 당이 달려 옆선에는 사다리꼴형 무 가 나타남 ·뒷중심 트임	삼각형 사다리꼴	
후기 (18C~ 19C중)	두루마기 형			·광수 두리소매 ·품, 소매가 가장 넓어진 시기 ·뒷중심 트임	삼각형	
말기 (19C중 ~20C)	두루마기 형			·광수 두리소매 ·후기와 형태가 동일하며 뒷중심 트임	삼각형	

4) 도포

도포는 조선시대 초기인 15세기와 16세기에는 유물을 보기 힘들며, 도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중기부터 살펴보고자 한다.

(1) 조선시대 중기

중기부터 도포의 유물들이 보이기 시작하는데 앞무가 삼각형이고 두루마기형은 김확(金燾, 1572~1633)의 겹으로 구성된 도포(그림 89)가 있다. 겹감과 안감은 주(紬)로 만들었고 겹깃은 칼깃, 안깃은 목판깃이다. 삼각형의 앞무에 사다리꼴 무와 직사각형 무으로 구성된 이엽삼이 연결되어 있어 한판 없이 뒷자락의 안감에 이엽삼의 윗부분을 상침하여 고정하였다¹¹⁵⁾.



<그림 89> 17C초 김확 도포
(출처:경기도박물관(2007), p.302)

도포의 발생 초기인 조선시대 중기에는 앞무가 두루마기형에 사다리꼴 모양이 일반적이었다. 앞무가 사다리꼴 형태는 홀도포인 홍극가(洪克加, 1670년 사망) 도포, 겹으로 구성된 정광경(鄭廣敬, 1586~1644) 도포가 있다

홍극가 도포(그림 90)는 칼깃에 소매는 두리소매형이다. 앞무는 두루마기형에 사다리꼴 모양이이며 이엽삼은 두 개의 사다리꼴로 이루어져 한판에 고정시켰는데, 사다리꼴의 앞무가 진동 아래쪽에 접히면서 삼각형 모양으로

115) 경기도박물관(2007), 전게서, p.176.

보이게 된다. 이엽삼의 가운데가 트여 있어 뒤트임이 있는 것처럼 보이나 이엽삼 위에 덮힌 뒷자락이 실질적인 뒷길에 해당된다¹¹⁶⁾.



<그림 90> 17C후 홍극가 삼베홀도포
(출처:문화재청(2006), p.260)

정광경 도포(그림 91)는 겹으로 구성되어 한판 없이 이엽삼의 윗부분이 뒷길에 바느질 되어 고정되었다¹¹⁷⁾. 앞무가 두루마기형의 사다리꼴이며 앞무에 이어진 이엽삼은 사다리꼴 무와 직사각형무로 이루어져 있다. 뒷자락 아래의 뒷중심은 트여져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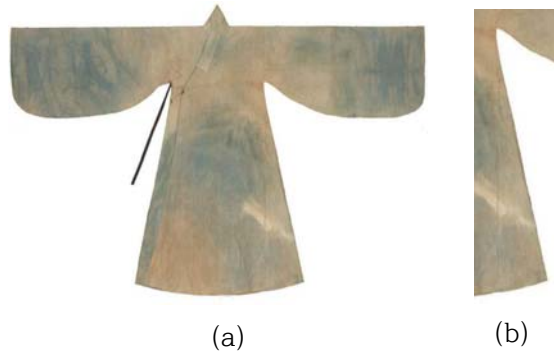


<그림 91> 17C후 정광경 도포
(출처:경기도박물관(2003), p.200)

116) 문화재청(2006), 전게서, p.260.

117) 경기도박물관(2003), 전게서, p.178.

앞무가 직사각형 형태이며 두루마기형은 김확(金燾, 1572~1633) 도포(그림 92)에서 보이며 견(絹)으로 만든 홀도포이다¹¹⁸⁾. 겹깃은 칼깃, 안깃은 목판깃에 이엽삼은 삼각형과 직사각형으로 구성되어 한판에 연결되었다.



<그림 92> 17C초 김확 도포
(출처:경기도박물관(2007), p.304)

(2) 조선시대 후기

조선시대 후기 유물은 영조(英祖)가 착용한 옥색 사(紗)로 만든 홀도포(그림 93)가 있다. 당시 도포의 깃이 칼깃이었던 것에 비해 목판 당코깃이고 소매는 넓은 두리소매이다. 앞무는 삼각형에 두루마기형이며 이엽삼은 사다리꼴형 무와 직사각형 무로 이루어져 있다. 삼각형 무에서 연장된 이엽삼은 한판 없이 뒷길 안쪽에 고정되어 있는데 홀도포의 경우 이엽삼의 윗부분을 한판에 연결하지만 이 도포는 뒷길에 부착시킨 점이 특이하다. 이는 원단이 무겁지 않은 사(紗)를 사용했거나 궁중에서는 전통을 고수한 경향으로 짐작된다¹¹⁹⁾.

118) 경기도박물관(2007), 전게서, p.3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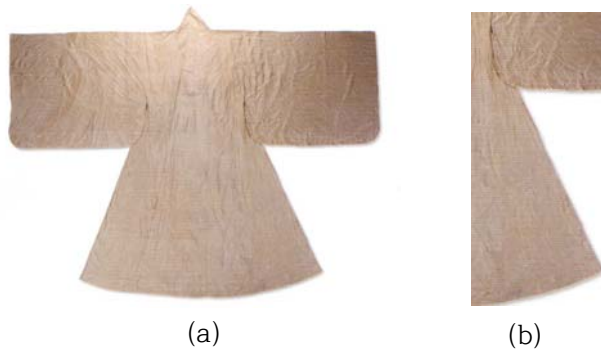
119) 문화재청(2006), 전게서, p.109.



<그림 93> 18C중 착용 영조 도포
(출처:문화재청(2006), p.109)

(3) 조선시대 말기

조선시대 말기의 도포의 무는 중기나 후기의 무와 비교하여 크게 변한 것이 없으며 이엽삼의 구조나 모양이 달라졌다. 말기의 유물인 이연응(李沆應, 1661~1722) 도포(그림 94)는 세주(細紬)로 만든 홀도포이다. 앞무는 삼각형에 두루마기형의 양식이며, 앞무에서 연장된 이엽삼은 사다리꼴무와 직사각형무로 뒷자락 안의 한판에 연결되었다¹²⁰.



<그림 94> 18C초 이연응 도포
(출처:경기도박물관(2002), p.90)

¹²⁰) 경기도박물관(2002), 전게서, p.90.

20세기에 도포 유물(그림 95)이 나타나는데 전(前)시대보다는 소매와 품이 좁아지는 등 간소화된 모습을 볼 수 있다. 앞무는 삼각형에 두루마기형에 이엽삼은 삼각형무와 직사각형무가 연결되었다. 이엽삼 위에 뒷자락이 붙어 있는 형태로 중기와 후기의 도포의 형태와 동일하다.



(a)











(b)

<그림 95> 20C 도포

(출처:국립민속박물관(2005), p.152)

도포는 앞무가 연장되어 이엽삼이라는 다른 포에서 볼 수 없는 구성요소가 있다. 이엽삼으로 인해 도포에는 무가 여러 개이나 본 연구에서 앞무를 중심으로 형태변화를 고찰하였으며, 도포의 무는 중기부터 말기까지 두루마기형의 삼각형, 사다리꼴, 직사각형으로 다양하게 나타난다. 겨드랑이 아래에서 무가 접히므로 앞에서 봤을 때는 삼각형 무처럼 보인다. 무가 달리는 위치는 중기에서 말기까지 겨드랑이 아래에 부착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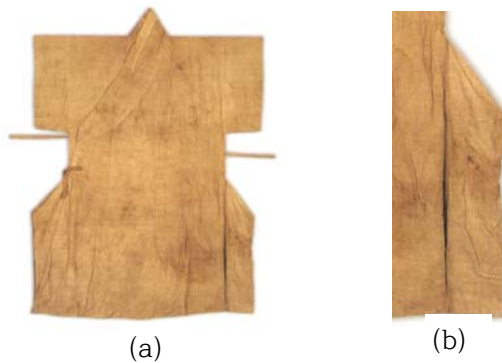
<표 11> 시대별 도포 무의 형태 변화

시대	유형	형태		특징	구조	출토 유물
		앞	뒤			
초기 (15C ~16C)	-	-	-	-	-	-
중기 (17C)	두루마기 형			·광수로 변하는 과도기의 소매 형태 ·앞무에 연결되어 이엽삼 이 나타남 ·겨드랑이에 당이 연결 ·이엽삼이 뒷길이나 한판 에 연결	삼각형 사다리꼴	
후기 (18C~ 19C중)	두루마기 형			·광수형 두리소매 ·앞무에 연결되어 이엽삼 이 나타남 ·이엽삼이 뒷길이나 한판 에 연결	삼각형	
말기 (19C중 ~20C 중)	두루마기 형			·광수형 두리소매 ·앞무에 연결되어 이엽삼 이 나타남 ·이엽삼이 뒷길이나 한판 에 연결	삼각형	

5) 답호

(1) 조선시대 초기

안주름형은 조선 초기의 유물에서는 찾아보기 힘들다. 고려시대의 해인사 답호로 인해 초기에도 존재하였음을 추측할 수 있다. 무의 형태가 직사각형이며 안팎주름사선형은 고운(高雲, 1479~1530) 답호(그림 96)에서 볼 수 있다. 이 답호는 명주(明紬)로 만들어져 겹으로 구성되어 있다. 겹깃은 칼깃, 안깃은 목판깃으로 겹깃 길이가 142cm로 현재 남아있는 포의 유물 중에 가장 길다¹²¹⁾. 옆선에 끈이 보이는데 이는 단령 안에 입을 때 답호와 단령을 고정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생각된다. 이 답호는 동시대의 직령과 형태가 유사하며 소매가 짧은 점만 다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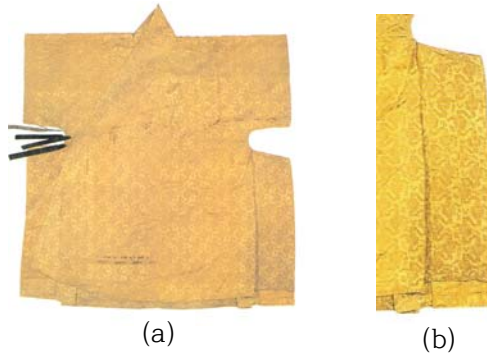


<그림 96> 16C초 고운 답호
(출처:문화재청(2006), p.357)

정응두(丁應斗, 1508~1572) 답호(그림 97)는 이중깃으로 겹깃은 칼깃이고 안깃은 목판깃이다. 무는 사다리꼴형의 안팎주름형에 무의 윗부분이 사선모양으로 안팎주름사선형처럼 보이기도 한다. 소매는 반수(半袖)형이며 앞이 뒤보다 짧다. 답호의 오른쪽에 보이는 끈은 고름으로 길에 직접 부착하지 않고 고리를 이용하여 몸판에 연결하였다¹²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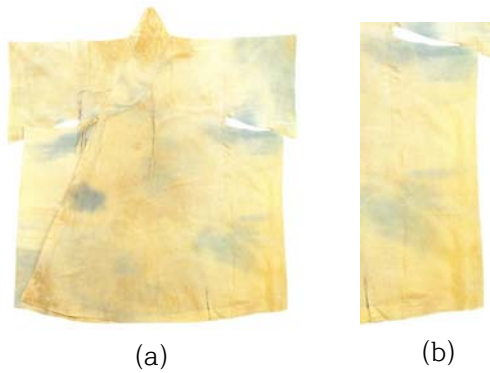
121) 문화재청(2006), 전계서, p.358.

122)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2006), 전계서, p.157.



<그림 97> 16C후 정응두 답호
 (출처: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2004), p.100)

심수륜(沈秀崙, 1534~1589) 답호(그림 98)는 면포(綿布)로 만든 홀으로 구성된 답호이다¹²³⁾. 깃은 칼깃이고 소매는 진동에서 끝으로 갈수록 넓어지는 반수형이다. 앞무와 뒷무는 직사각형이며 무의 바깥쪽에서 한번 접은 박주름형이다.



<그림 98> 16C후 심수륜 답호
 (출처:경기도박물관(2004b), p.13)

123) 경기도박물관(2004), 전게서, p.117.

사다리꼴형에 박주름형의 무는 조경(趙敬, 1541~1609) 답호(그림 99)에서 보이며 이와 형태가 거의 유사한 조경 단령(그림 66)도 있다. 이 답호는 연화만초능문(蓮花蔓草菱文)으로 만들어 홑으로 구성되어 있고 겹깃과 안깃 모두 칼깃이다. 조선 초기의 다른 답호는 무의 윗부분이 수평이거나 아래로 접힌 사선형인데 끝이 위로 올라간 점이 다르다. 무의 윗부분에만 바느질되어 앞무와 뒷무가 연결되어 있고 옆은 트여있다¹²⁴.



(a)

(b)

<그림 99> 17C초 조경 답호
(출처:서울역사박물관(2003), p.27)

(2) 조선시대 중기

중기에도 초기와 같은 박주름형의 무가 나타나며 그 중 직사각형 형태는 윤선언(尹善言, 1580~1628) 답호에서 나타난다. <그림 100>는 홑답호에 겹깃은 칼깃이고 옆에 가려진 안쪽 깃은 목판깃이고¹²⁵, 소매는 반수형태로 너비는 진동너비와 같다. 고름은 몸판에 고리를 이용하여 간접적으로 부착하였다. 무는 겨드랑이 아래에 달려 있으며, 앞무와 뒷무의 바깥쪽에 주름을 두 번 잡아 총 주름이 네 개다.

124) 서울역사박물관(2003), 전개서, p.63.

125) 단국대학교 출판부(2009b), 전개서, p.24.



(a) (b)
 <그림 100> 17C초 윤선언 답호
 (출처: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2009b), p.24)

사다리꼴에 옆 트임이 없는 두루마기형의 무가 <그림 101>에서 보이는데 이 답호는 대금형의 깃으로 전복(戰服)과 형태가 유사하다. 이괄의 난(李适一亂, 1624)을 평정하고 돌아온 남이흥(南以興, 1576~1627) 장군에게 인조(仁祖)가 입었던 포를 벗어 준 것이라고 전한다.¹²⁶⁾ 왕이 입은 답호로 지금까지 출토유물에서 보이는 답호와 달리 가슴에 흉배가 달려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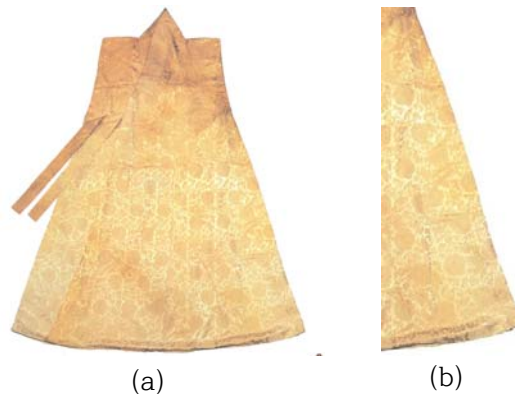


(a) (b)
 <그림 101> 17C초 남이흥 답호
 (출처:문화재청(2006), p.145)

126) 문화재청(2006), 전게서, p.145.

(3) 조선시대 후기

무가 두루마기형에 삼각형은 <그림 102>의 이변(李昉, 1636-1731) 답호에 서 볼 수 있다. 겹으로 구성되어 겹감은 연화문단(蓮花紋緞)이고 안감은 주(紬)이다. 초기의 답호와 달리 소매가 없고 품이 몸에 맞게 되어 섹이 앞 중심으로 이동하였으며, 뒷중심의 트임이나 옷고름은 같은 시대의 창의와 형태가 같다¹²⁷⁾. 조선 초기와 중기에서 보이는 답호의 모양이 사라지며 전복으로 맥을 잇고 있는 과도기형의 답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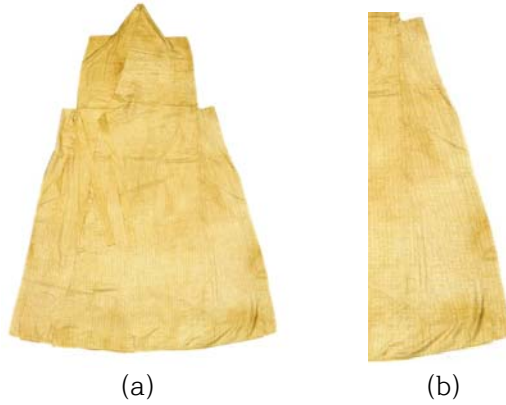
<그림 102> 18C초 이변 답호

(출처: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2006), p.110)

이변의 또 다른 답호(그림 103)는 사다리꼴 모양에 두루마기형의 무가 나타난다. 겹감과 안감은 주(紬)로 겹으로 만들어 누볐다. 소매가 없고 진동 부분은 길 쪽으로 더 들어가서 파여져 있고, 옆선의 아래에 일부분이 트여 있다¹²⁸⁾.

127)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2006), 전계서, p.1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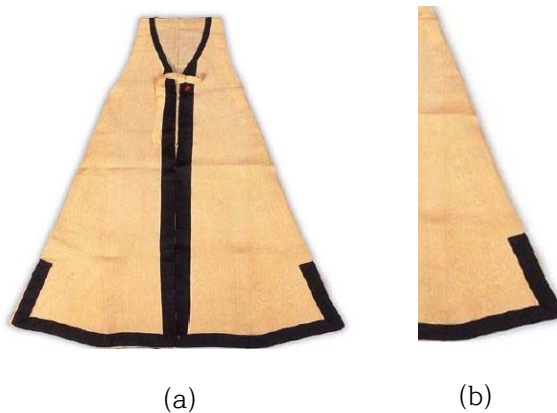
128)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2004), 전계서, p.102.



<그림 103> 18C초 이변 답호
 (출처: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2004), p.102)

(4) 조선시대 말기

조선시대 말기의 답호는 전복으로 형태와 용어가 바뀌어 그 유물을 보기 어려우나 19세기의 정원용(鄭元容, 1783~1873)의 유물에 답호(그림 104)가 있다. 깃이 대금형으로 바뀌었으며 답호의 특징인 고름과 전복의 특징인 매듭단추가 달려 있다. 무는 삼각형에 두루마기형이다.



<그림 104> 19C 정원용 답호
 (출처:문화재청(2006), p.141)

답호는 조선시대 초기의 출토유물 수가 많으며, 후기에는 답호가 전복으로 바뀌어 유물을 찾아보기 어렵다. 초기와 중기의 무의 형태는 직사각형과 사다리꼴이고 후기는 삼각형과 사다리꼴 형태가 보인다. 말기는 전복의 형태로 바뀌어 삼각형이 나타난다.

초기에 안팎주름사선형, 안팎주름형, 밖주름형의 무가 나타난다. 초기에 볼 수 있는 안팎주름사선형과 안팎주름형이 임진왜란을 기준으로 사라지고 밖주름형으로 정착되었다. 후기와 말기는 두루마기형 무가 주를 이루었다.

무가 달리는 위치는 안팎주름사선형이 겨드랑이점과 거리가 제일 멀고 안팎주름형과 밖주름형은 겨드랑이 점과 가까운 곳에 부착되었다. 중기에 두루마기형의 무가 등장하여 겨드랑이 점이 무가 달리는 시작부분이 되었다. 이러한 답호의 무의 변화 양상은 단령, 직령과 거의 동일하다.

<표 12> 시대별 답호 무의 형태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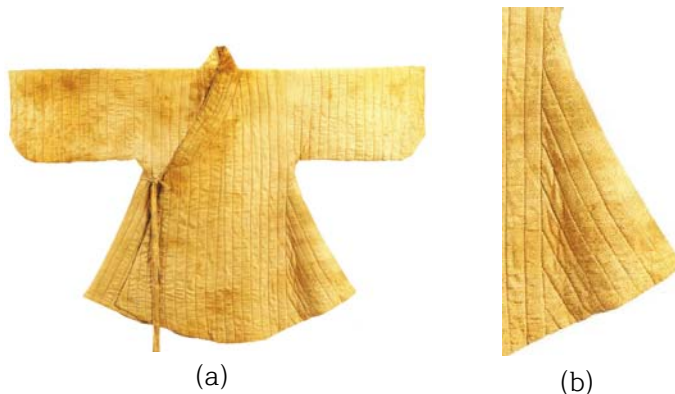
시대	유형	형태		특징	구조	출토 유물
		앞	뒤			
초기 (15C ~16C)	안주름형			·출토유물은 없으나 고려 시대에 출토된 것으로 보아 존재하였음을 추측	-	-
	안팍주름 사선형			·반수형 ·간접부착형 고름이 달림	사다리꼴 직사각형	
	안팍주름형			·반수형 ·간접부착형 고름이 달림	사다리꼴 직사각형	
	밖주름형			·반수형	사다리꼴 직사각형	
중기 (17C)						
후기 (18C~ 19C중)	두루마기형			·소매가 없음 ·품이 몸에 맞게 됨 ·말기는 맞깃으로 변화 ·전복으로 바뀌게 됨	삼각형 사다리꼴	 
말기 (19C중 ~20C)						

6) 주의

17세기 조선시대 중기 주의 유물은 찾아보기 어려우며 조선시대 초기와 후기의 형태가 비슷한 것으로 보아 조선시대 중기의 주의의 형태는 넓은 품에 삼각형 무가 달렸음을 추측할 수 있다.

(1) 조선시대 초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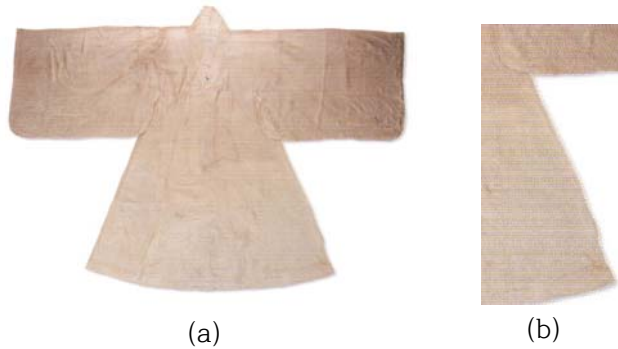
주의는 조선시대 후기의 대표적인 복식이지만 심수륜(沈秀崙, 1534~1589) 묘에서 출토된 주의(그림 105)로 보아 초기에도 존재했음을 알 수 있다. 심수륜 주의는 겨드랑이 아래 작은 삼각형 무가 달려 있으며 옆선은 트임이 없는 두루마기형의 사다리꼴무가 부착되어 있다.



<그림 105> 16C후 심수륜 주의
(출처:경기도박물관(2004b), p.28)

(2) 조선시대 후기

조선시대 후기에는 삼각형무에 두루마기형을 가진 주의의 유물이 있다. 이 연응(李沆應, 1661~1722) 주의(그림 106)는 곁감과 안감 모두 세주(細紬)로 만들었다. 이 유물은 곁감에 어깨 솔기가 있는 점이 특징으로 말기의 복식에는 어깨 시접이 있으나 그 전에는 없어 어깨 솔기가 나타난 특이한 포이다¹²⁹⁾.



<그림 106> 18C초 이연응 주의
(출처:경기도박물관(2002), p.93)

(3) 조선시대 말기

20세기 초기의 유용준(兪容濬, 20세기) 주의(그림 107)가 있으며, 후기와 마찬가지로 옆이 막힌 삼각형의 두루마기형 무에 전 시대와 달리 무의 폭이 줄어들고 길이가 길어졌다. 품과 소매도 좁아져 착용하기 간편한 형태로 변함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07> 20C초 유용준 주의
(출처: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2012), p.94)

129) 경기도박물관(2002), 전게서, p.93.

주의는 조선 후기의 대표적인 포로 조선 초기에 출토된 주의를 보아 초기에도 주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다. 무의 형태는 초기에서 말기까지 삼각형과 사다리꼴형이 나타났으며 사다리꼴형은 윗변이 매우 짧아 창의에서 보이는 사다리꼴형과 유사하다. 주름 양식은 조선시대 초기부터 말기까지 두루마기형이 나타나고 겨드랑이 아래에 부착되었다.

<표 13> 시대별 주의 무의 형태 변화

시대	유형	형태		특징	구조	출토 유물
		앞	뒤			
초기 (15C ~16C)	두루마기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통수형 ·넓은 삼각무 ·트임이 없음 	삼각형	
중기 (17C)	-	-	-	-	-	-
후기 (18C~ 19C중)	두루마기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광수형 두리소매 ·넓은 삼각무 ·트임이 없음 	삼각형	
말기 (19C중 ~20C)	두루마기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착수형 ·폼이 좁아 몸에 맞게 됨 ·트임이 없음 	삼각형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조선시대 초기에는 고려시대에 나타난 안주름형의 무가 단령과 직령에서 보여지며 답호는 초기 유물은 없으나 고려시대 불복장 유물 중 해인사 소장 답호로 인해 초기에도 존재했음을 추측할 수 있다. 단령, 직령, 답호가 안팎주름사선형, 안팎주름형, 밖주름형의 무가 주를 이루었고 창의, 중치막, 도포, 주의는 두루마기형의 무가 나타났다.

조선시대 중기는 단령과 직령에서 나타난 안주름형, 안팎주름사선형, 안팎주름형의 무가 사라지고 밖주름형, 뒤젓힘주름형, 뒷길고정형이 나타났으며, 답호는 초기에 나타난 안팎주름사선형, 안팎주름형의 무가 보이지 않고 밖주름형과 두루마기형의 무가 보여진다. 답호에 두루마기 형이 나타나는 것은 후에 전복으로 바뀌는 변화 과정의 시작점으로 볼 수 있다. 창의, 중치막, 도포는 초기와 같이 두루마기형 무가 나타난다. 주의는 출토 유물이 없으나 초기와 후기에 두루마기형이 나타난 것으로 보아 무의 형태가 두루마기형으로 추측할 수 있다.

후기의 단령은 밖주름형이 사라지고 뒤젓힘주름형과 뒷길고정형의 무가 나타났으며 직령은 두루마기형 무가 새로 나타남을 볼 수 있다. 그 외의 다른 포는 두루마기형 무가 나타났다.

말기의 단령은 뒷길고정형과 두루마기형이 혼용되었으며 단령의 안깃에 직령의 깃이 부착되어 직령은 조선시대 말기에 착용사례를 보기 어렵다. 창의, 도포, 답호, 주의는 모두 두루마기형이 나타난다.

조선시대 남자 포의 무의 형태는 조선시대 초기와 중기에 삼각형, 사다리꼴, 직사각형이 두루 나타났으며 중기에는 사다리꼴 무가 많이 보여졌다. 후기부터는 직사각형 무가 사라져 삼각형과 사다리꼴의 무가 주로 나타났고 말기에는 삼각형 무를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무의 변천로 보아 조선시대 초기에는 다양한 유형과 형태를 가진 무들이 보였으나 후기로 갈수록 구조가 단순해지고 삼각형의 주름이 없는

두루마기형 무로 변화였다. 이러한 현상은 조선시대 중기부터 발생한 실학이라는 새로운 사상과 말기의 간소화 경향 등 사회적인 분위기로 인하여 의복에서 소매너비와 폭이 좁아지고 간소하고 단순한 포의 형태를 추구하였음을 알 수 있다.

V. 결론

조선시대는 예를 중시하여 남자들은 항상 의관(衣冠)을 갖추었다. 이로 인하여 겉옷으로 착용한 남자 포는 여러 종류로 발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남자 포 중 단령, 직령, 창의, 도포, 답호, 주의를 선정하여 포의 특징을 서술하고 형태 변화를 분석하였다.

조선시대 남자 포는 길, 소매, 깃, 무 등 여러 가지 구성요소로 이루어져 있다. 그 중 포의 옆선에 부착된 무에 중점을 두어 무의 형태 변화와 포의 변천을 알아보았다. 포에 나타난 무의 형태는 크게 삼각형, 사다리꼴, 직사각형 모양으로 분류할 수 있다. 삼각형 무는 겨드랑이 아래에서부터 밑단까지 옆선에 큰 삼각형의 무가 연결된 것이며, 다음에 서술될 사다리꼴형, 직사각형과는 달리 주름이 없는 것이 특징이다. 주름 없이 단순한 모양으로 장식성의 기능이 없어 말기의 간소화 경향 때 널리 착용된 주의나 말기의 단령에서 삼각형의 무가 사용되었다.

사다리꼴형의 무는 직사각형 무에서 삼각형이 부착되면서 생겨난 것으로 보이며 단령, 직령과 창의, 도포, 두루마기에 부착된 사다리꼴형의 무는 모양이 다르다. 단령과 직령에는 무의 윗부분이 뾰족한 변형 사다리꼴이 부착되었으나 창의, 도포, 두루마기에서 무의 윗변과 아랫변이 평행한 사다리꼴 모양이 나타나며 윗변이 매우 짧다. 사다리꼴형의 윗변이 겨드랑이의 당에 연결되기도 하는 것으로 보아 당이 나타나는 포에는 사다리꼴형의 무가 부착되어 있어 둘 사이에는 상관관계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직사각형 무는 단령과 직령, 도포의 조선 초기에 많이 나타나는 유형으로 넓은 직사각형 무가 달렸으므로 이를 처리하기 위해 여러 가지 주름을 주어 다양한 유형이 나타났다.

조선시대 남자들의 대표적인 포로 선정된 단령, 직령, 창의, 중치막, 도포,

답호, 주의를 중심으로 무의 유형 및 형태 변화에 대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단령의 경우 조선시대 초기에 안주름형, 안팎주름사선형, 안팎주름형, 밖주름형으로 나타났으며, 겨드랑이점보다 아래에 직사각형의 무가 달렸다. 중기에는 안주름형, 안팎주름사선형, 안팎주름형이 사라졌고, 사다리꼴형의 뒤젓힘주름형과 뒷길고정형이 새로이 나타났다. 후기에는 주로 사다리꼴 형태의 무가 뒤젓힘주름형과 뒷길고정형으로 정착되어 나타났다. 말기에는 뒤젓힘주름형에서 뒷길에 매듭단추나 상침으로 고정된 형태로 발전된 뒷길고정형의 무가 주를 이루었고 의복 간소화 경향으로 인해 삼각형의 두루마기형의 무도 나타났다.

직령은 조선시대 초기에 안주름형, 안팎주름사선형, 안팎주름형, 밖주름형의 무가 직사각형 형태로 나타났고, 중기에는 밖주름형, 뒤젓힘주름형, 뒷길고정형의 무가 직사각형과 사다리꼴형으로 나타나 뒤젓힘주름형과 뒷길고정형은 윗무가 뾰족한 사다리꼴형임을 알 수 있다. 중기까지는 단령과 직령의 무의 형태 변화가 동일하게 나타나는데 이는 단령의 안감으로 직령이 착용되었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후기에는 삼각형 형태의 두루마기형 무가 나타나고 말기에는 단령의 안깃에 직령의 깃이 부착되면서 단령의 안감으로 사용된 직령이 사라져 그 유물을 찾아보기 힘들다.

창의는 조선시대 중기부터 널리 착용되었으나 초기에도 그 형태를 볼 수 있다. 초기에서 말기까지 삼각형의 두루마기형 무가 나타났고 중기에는 사다리꼴형 무의 형태를 확인 할 수 있는데 이는 중기의 단령과 직령의 윗무가 뾰족한 사다리꼴형 무와 다르게 윗변이 매우 짧고 윗변과 아랫변이 평행하며 겨드랑이의 당에 연결되어 있다. 창의의 무의 형태 변화는 단령과 직령에 비해 비교적 단순함을 알 수 있다.

도포는 조선시대 중기부터 착용된 복식으로 초기에는 무의 형태를 알 수 없으며, 다른 포와 다르게 앞무와 앞무에 연결되는 이엽삼으로 무가 여러 개로 본 연구에서는 앞무를 기준으로 하여 무의 형태변화를 분석하였다. 중

기의 도포는 두루마기형에 삼각형, 사다리꼴형, 직사각형 무가 나타나며 여기에 보여지는 사다리꼴형은 윗변과 아랫변이 평행한 이등변 사다리꼴형의 모양이다. 후기와 말기에는 두루마기형에 삼각형이 보여진다.

답호는 조선시대 초기에 안팎주름사선형, 안팎주름형, 밖주름형의 직사각형의 무와 두루마기형의 사다리꼴 무가 나타났다. 중기에는 안팎주름사선형과 안팎주름형이 사라졌으며 직사각형의 밖주름형 무와 두루마기형 무가 보여진다. 후기는 두루마기형의 삼각형과 사다리꼴형 무가 나타나고, 말기는 두루마기형의 삼각형 무이며 답호가 전복으로 바뀌게 되면서 착용사례가 줄어들어 사라진 포제이다.

주의는 조선시대 초기부터 말기까지 삼각형의 두루마기형의 무가 나타나며 현재까지 전해지고 있는 주의의 형태는 조선시대 말기부터 나타난 간소화된 형태이고 후기까지 품이 넓어 큰 삼각형 무로 구성되어 있다.

이와 같이 조선시대 남자포의 무의 형태변화는 조선 초기에서 후기까지 무의 유형이 안주름형, 안팎주름사선형, 안팎주름형, 밖주름형, 뒤젓힘주름형, 뒷길고정형, 두루마기형의 일곱 가지가 나타났고, 무의 형태는 삼각형, 사다리꼴, 직사각형으로 다양하게 보여 졌다. 그러나 조선시대 말기로 갈수록 무는 삼각형의 두루마기형으로 단순화되었는데 이는 조선시대 후기부터 나타난 실학사상과 조선 말기의 의복 간소화 경향으로 인한 것으로 추측된다.

참 고 문 헌

[단행본]

- 고복남(1984). 한국 전통 복식사 연구. 서울 : 일조각.
- 경기도박물관(2002). 조선의 옷매무새. 서울 : 민속원.
- _____ (2003). 동래정씨묘 출토복식 조사보고서. 서울 : 경기도박물관.
- _____ (2004a). 경기도박물관 명품선. 용인 : 경기도박물관
- _____ (2004b). 심수륜 묘 출토복식. 용인 : 경기도박물관.
- _____ (2007). 김확 합장묘 출토복식. 용인 : 경기도박물관.
- 국립국어연구원(1999). 표준 국어 대사전. 서울: 두산동아.
- 국립공주박물관(2004). 고구려 고분벽화 모사도. 광주 : 국립공주박물관.
- 국립민속박물관(2000). 오백년의 침묵, 그리고 환생. 서울 : 국립민속박물관.
- _____ (2004). 남오성 묘 출토복식. 서울 : 국립민속박물관.
- _____ (2005). 한민족 역사 문화도감 : 의생활 : 국립민속박물관 소장품. 서울 : 국립민속박물관.
- _____ (2010). 이진승 묘 출토복식. 서울 : 국립민속박물관.
- 국립청주박물관(1996). 백제금동대향로와 창왕명사리감. 청주 : 국립청주박물관.
- 김영숙(1998). 한국복식 문화사전. 서울 : 미술문화.
-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2004). 명선-중. 서울 :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 _____ (2006). 환생. 서울 :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 _____ (2009a). 정사공신 신경유공 묘 출토 복식. 용인 : 단국대학교출판부.
- _____ (2009b). 해남윤씨 굴정공파 광주출토 유물. 용인 : 단국대학교출판부.

- _____ (2012). 조선 마지막 공주 덕온가의 유물. 용인 : 단국대학교출판부.
- _____ (2013). 영릉 참봉 한준민 일가 묘 출토 유물. 서울 : 민속원.
- 대전선사박물관(2010). 옷섬사이로 비치는 조선. 대전 : 메세나출판사.
- 류희경(2008). 우리옷 이천년. 서울 : 미술문화.
- 문화재청(2006). 문화재대관 : 중요민속자료2 복식,자수편. 대전 :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
- 서울역사박물관(2003). 조경묘 출토 유의. 서울: 서울역사박물관.
- 안명숙 · 김용서(2006). 한국복식사. 서울 : 예학사.
- 옛길박물관(2010). 중치막 자락에 깃든 사연. 서울 : 민속원.
- 유송옥(1988). 한국복식사. 서울 : 수학사.
- 유희경 · 김문자(2006). 한국복식 문화사. 서울 : 교문사.
- 이영훈 · 신광섭(2004a). 고분미술1. 서울: 솔.
- _____ (2004b). 고분미술2. 서울: 솔.
- 이은주 · 조효숙 · 하명은(2005). 17세기의 무관 옷 이야기. 서울 : 민속원.
- 이화여자대학교 박물관(2006), 17세기 조선 무관의 차림새. 서울 : 이화여자 대학교 박물관.
- 임명미(1996). 한국의 복식문화 II. 서울 : 경춘사.
- 장인우(1995). 우리나라 16·17세기 출토복식. 서울 : 학연문화사.
- 최은수(2007). 조선시대 백관의 단령. 서울 : 민속원.

[학위논문]

- 류정순(2010). 근세 한일 남자 포의 조형적 특성 비교 연구. 박사학위논문. 경성대학교 대학원.
- 윤미화(1982). 창의류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이경민(2005). 주의의 보편화의 과정과 요인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이은주(1998). 도포 양식의 발전에 대한 갈등·기능론적 분석. 박사학위논문.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학회지논문]

송미경(2009). 조선시대 답호 연구. 한국복식학회, 59(10). pp.51-67.

심연옥·민길자(1997). 조선 전기 출토 직물의 종류와 그 제직 기구에 대한 고찰. 단국대학교 민속박물관, 15(-). pp.1-27.

안명숙(2012). 조선시대 중기 출토복식 중 포류에 관한 연구. 남도민속학회, 24(-). pp.171-198.

이민주(2005). 옥소 권섭의 학창의에 관한 연구. 복식문화학회, 13(2). pp.269-279.

이상은·김정애(2013). 조선시대 도포의 형태에 관한 연구. 한국문화학회, 16(1). pp.19-37.

이주영·권영숙(2003). 조선시대 직령의 유형과 특성. 한국복식학회, 53(6). pp.25-43.

_____ (2004). 직령의 부위별 형태 특성과 상호간의 관련성 연구. 한국복식학회, 54(5). pp.109-123.

최경순(1993). 조선조 포류의 변천. 경일대학교, 9(1). pp.683-693.

최정옥(2007). 조선시대 편복포에 관한 연구. 한국의상디자인학회, 2007(6). pp.85-89.

홍나영(2008). 출토복식을 통해서 본 조선시대 남자 편복포의 시대구분. 한국복식학회, 58(5). pp.118-133.

ABSTRACT

A Study in Shape Alternation of the Gusset of Men's Po in Joseon Dynasty

Kim, Shin-ae
Dept. of Clothing
Graduate School of
Sungshin Women's University

Joseon Dynasty was a nation established on the basis of revering Confucianism and oppressing Buddhism and a social position society. Due to Hideyoshi's Japanese Invasion of Joseon in 1592 in the middle of Joseon dynasty, great change arose politically, economically and socially. And, this had influence on the culture of dress and its ornaments. So, male Po(袍) was differentiated into various kinds. Thus, the number increased. Po was worn for the purpose of protection against the cold since ancient times. Then, men of Joseon dynasty wore Po so as to be in full dress indoors and outdoors for keeping etiquette, and they wore Po which are different in accordance with social position class or use. As for this male Po, shape of composition elements such as coat collar, sleeve and gusset etc. changed in accordance with period. And, by this, we can see the formative preference of clothes of then people.

This researcher tried to study the shape alternation of gusset by choosing clothes used as the ordinary dress of nobleman such as Danryoung(團領), Jikryoung(直領), Changeui(擎衣), Dopo(道袍), Dabho(褡褳), and Jooeui(周衣) etc. among of the male Po of Jeseon dynasty. This study aims at examining how the male Po of Jeseon dynasty changed through the analysis of formative characteristics and type which show by periods, by laying emphasis on the structure and shape alternation of gusset out of the composition elements of male Po of Jeseon dynasty. This study has meaning in that this researcher may understand and grasp the feature and shape of male Po of Jeseon dynasty which show in excavated dress and its ornaments and relic more exactly through this.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types of gusset which showed in the male Po of Jeseon dynasty are classified into total 7 kinds such as inside pleat type that various pleats are folded at the lower part of armpit point and they penetrate the inside of side line, inside and outside oblique line pleat type that upper part of gusset is folded with oblique line in the shape that side line and outside of gusset are folded, inside and outside pleat type that there are pleats at side line that gusset is connected and at the outside of gusset, outside pleat type that there are pleats only at the outside of gusset, pleat type which is pulled to back that the upper part of front gusset and back gusset are pulled to back, fixation type of back piece of an upper garment that the upper part of gusset which is pulled to back is fixed at the back piece of an upper garment with knot button or decorative saddle stitching, and non pleat type that there is not pleat. As

for formative shape, this researcher classified into triangle, trapezoid type and rectangle. Out of the shape of gusset, transformational trapezoid type that upper side is pointed is similar to lozenge type. But, it is the form to be equal to trapezoid except that upper side is pointed. Thus, it was classified as trapezoid in this study.

Second, as for the type and shape of gusset, gusset of rectangle of inside pleat type, inside and outside oblique line pleat type and inside and outside pleat type formed main part in the early stage. In Danryoung and Jikryoung, reinforcing gussets of rectangle of inside pleat type, inside and outside oblique line pleat type, and inside and outside pleat type are seen much, and outside pleat type showed as rectangle newly. In Changeui, gusset of triangle of non pleat type is seen. And, in Doho, it is difficult to know form, as there is not initial relic. But, it can be seen that Doho was worn in the early stage also with the existence of Jikryoung Po of Doho type of Hein temple in Koryo dynasty. In Dabho, gusset of inside and outside oblique line pleat type and inside and outside pleat type show mainly. And, there is not the gusset of inside pleat type. But, as it shows in Dabho of Hein temple of Koryo dynasty, we can guess that inside pleat type existed in the early stage also. Gusset of Joouei is non pleat type of triangle.

In the middle, gusset of rectangle of outside pleat type, rectangle of pleat type which is pulled to back, and trapezoid shape that upper side is pointed show much. This form of gusset is shown in Danryoung and Jikryoung, and type that back piece of an upper garment is fixed showed as trapezoid type newly in Danryoung. In Doho and Changeui, gusset of non pleat type and gusset of trapezoid type of main part.

And, Dabho is shown as rectangle which is gusset of outside pleat type and trapezoid type which is Dugumagi type. Trapezoid which shows in Dopo, Changeui, and Dabho is different from trapezoid type of Danryoung and Jikryoung, and it is equilateral trapezoid type. And, in Jooeui, Dufumagi type shows on the gusset.

In the latter period, pleat type which is pulled to back, trapezoid type of type that back piece of an upper garment is fixed and gusset of triangle of non pleat type show mainly. Danryoung is gusset of transformational trapezoid type that upper gusset of pleat type which is pulled to back and type that back piece of an upper garment is pointed. And, Jikryoung is triangle of non pleat type. Judging from it, it can be seen that style of reinforcing gusset was same to the middle but it became different in the latter period. Changeui, Dopo, Dabho, and Jooeui are gusset of triangle of non pleat type.

In the late stage, trapezoid type of type that back piece of an upper garment is fixed and triangle of non pleat type form main stream. As for Danryoung, upper part of gusset was fixed at back piece of an upper garment with knot button or decorative saddle stitching. And, because of the simplification tendency of clothes, gusset of man's outer coat type of triangle showed. While Jikryoung was used as the lining of Danryoung, collar of Jikryoung was stuck to the inside collar of Danryoung in the late stage. So, wearing cases decreased. Thus, it is difficult to find relic. As for Changeui, Dopo, and Dabho, gusset of non pleat type of triangle showed in the late stage also. And, as for Dabho, there is relic which disappeared in the late stage, but it changed into form to be similar to Junbok(戰服). As for Jooeui, gusset of non pleat type of triangle shows.

As the result of examining the shape alternaion of gusset of male Po of Jeseon dynasty, gusset started to be used for the convenience of activity, and diverse shapes of gusset show by periods. Juding from it, we can see the function of decorative that artistic preferenca of then people was reflected. Because of simplification tendency of clothes of the last period, gusset of triangle of non pleat type of simple form that there are not pleats was used more than gusset that there are pleats. It can be seen that the form of this gusset changed under the influence of social change of Jeseon dynasty.